

Voice of Asia

Third Edition September 2017

한글 번역본

역자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Deloitte
Insights

BOOKK

Voice of Asia 시리즈는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도전과 기회를 살펴보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다.
또한,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적 협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COVER IMAGE BY: JASON SOLO

목차

| | |
|-----------------------|----|
| 인구변화, 아시아 힘의 균형에도 변화를 | 2 |
| 늘어가는 호랑이, 숨은 용 | 7 |
| 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 | 21 |
| 주목할 만한 국가별 인구통계 | 31 |

인구변화, 아시아 힘의 균형에도 변화를

인구의 변화는 모든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변화는 아시아 지역 내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도의 '젊은 경제'가 오름세에 있고, 일본의 고령화는 거대한 재정 적자를 야기시켰으며, 중국과 호주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중국은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중국이 깨어나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200여 년 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이다.

그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현재 다른 두 잠자는 거인이 몸을 뒤척이고 있다.

높어가는 호랑이, 숨은 용

몸을 뒤척이고 있는 첫 번째 거인은 바로 인도다. 경제 초강대국으로서 인도의 부흥이 본격적으로 실감나는 요즘이다. 이번 호 첫 번째 기사인 <높어가는 호랑이, 숨은 용>에서는 다가오는 10년 간 아시아 노동력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다.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우리에게도 인디언 서머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반 세기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인도의 부흥은 세계경제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인도가 인구 팽창을 앞 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인구 상승세에 올라탈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의 연령이 낮는데, 세계 평균을 웃도는 출생률이 그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해당 국가의 성장에 인구 변동은 역풍보다는 순풍에 가까울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기회를 볼 때

눈을 뜨고 있는 두 번째 거인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은퇴 인구'다. 홍콩은 노동력이 빠르게 노령화됨에 따라 아시아의 어느 곳보다 여파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호주와 같은 나라들도 모두 인구의 고령화 탓에 경제가 둔화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태국과 뉴질랜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세계가 시장의 고령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산업계에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단순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구 변동의 종착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전혀 새로운 상황도 아니다. 자국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일군 아시아의

1세대 국가인 일본은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 두번째 기사인 <인구 변화로 촉발된 아시아 성장의 변화>는 그러한 변화의 올바른 방향에 위치한 경제가 잠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변화에서 불리한 방향에 놓인 국가들에서도 고령화가 산업 수준에서 상당히 거대한 승리자들을 생산해 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지막 주장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인구 고령화는 어떤 나라에는 도전이 되겠지만, 또 다른 나라에게는 놀라운 산업적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되는 인구는 주류 산업이 붕괴되는 정점에서 새롭게 생동하는 '성장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대 수명 증가와 상대적인 의료비 증가, 공공 부문의 건강 예산 압박 등이 그 예다.

그 규모는 그야말로 대단하겠지만, 관련 산업에 열린 기회도 마찬가지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넘는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2017년 365백 만의 규모가 2027년에는 525백 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미국의 동일 연령 인구를 넘어섰다. 21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10억 이상이 될 것이다. 사실상 사반세기 내인 2042년까지 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유럽과 북미의 해당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당신의 생각이 맞다. 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가 북미와 유럽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현실화될 것이다.

타깃이 보다 풍부해지는 산업환경은 기회가 될 것이며, 기회들은 아시아의 노령화의 선두에 선 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다.

빛을 밝힐 국가 통찰력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특정 국가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피고 아시아·태평양의 집단 통찰과 공통된 경향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호 세 번째 기사인 <주목할 만한 국가별 인구 변동>에서 본지는 각국 전문가들에게 인구 변동과 관련된 고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세 가지 핵심을 살펴 봤다. 해당 질문들은 산업을 위한 기회와 선거권을 박탈당한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 노동력 관련 변화를 이끄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인구가 가진 힘에 집중한 이번 호 *보이스 오브 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발전을 다룬 지난 시리즈와 연결된다. 지난 호가 노동자의 효율성을 평가 했다면 이번 호는 노동자의 숫자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어 국제 인구의 고령화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보여준다. 2027년까지 아시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억 6천 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를 합쳐도 그 숫자는 ‘단지’ 3천 3백 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서구 세계에 인구 노령화가 미칠 영향이 덜 중요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동양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아시아의 노령화 인구는 거대하며 서구보다 더 빨리 나이들 것이며, 이는 노령화가 가져올 정책적 난제와 산업 기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클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아시아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또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아시아의 나이 들어가는 호랑이들에게 있어, 그들의 성장은 현재 인구통계학적 운명의 잘못된 측면에 놓여 있으며, 생산성 향상 개혁과 이민자들에 대한 개방성, 여성의 더 큰 참여를 향한 움직임을 포함한 다른 성장 동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이용할 것: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의 어느 쪽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장을 최대한으로 부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말레이시아, 인도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다.

이민자를 끌어안을 것: 인구통계학적 성장 둔화의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이민정책에 가장 관대한 국가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17년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에 반대하는 쪽이 표를 끌어 모으고 있다. 이민자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 노령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정책과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이민이 충분한 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다.

분명한 것은 이민 확대가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고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경제적 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 요소인 인구와 참여 및 생산성 모두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정치제도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순 이민자 수, 특히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의 이민을 정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국가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 노동자만큼 여성 노동자를 꺼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어떤 나라에는 도전이 되겠지만,
또 다른 나라에게는 놀라운 산업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인구학적 기회 포착을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리스크와 수익은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익이
좋을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은 다른 이야기다. 인구통계학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미래에 관한 예측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예측이기 때문이다.

레크리에이션 산업부터 의료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에서 나이든 고객층과 젊은 고객층은 다른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진 지 이미 오래다. 기업들이 현재 가장
높은 확률로 베팅할 타깃은 아시아의 잠자는 인구학적
거인인 고연령 고객층이며, 여러 부분에 걸쳐 등장하는
이러한 '성장 클러스터'의 이점을 활용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해야 한다.



늪어가는 호랑이, 숨은 용

아시아는 인구 변화에 따라 성장 동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향후 10년 간 빠르게 판도가 바뀔 것이다. 아시아의 제3의 성장 물결의 시작 지점에서 늪어가는 호랑이는 인구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는 반면, 숨어 있던 용은 꿈틀대고 있다.

아시아의 제1의 물결은 1990년대 일본의 상대적 “인적 파워(People power)”로 정점에 달했고, 제2의 물결은 중국의 인적 파워로부터 거대하게 일기 시작했다. 지난 40년 간 전력 질주한 중국의 인적 파워는 새로운 10년의 시작 지점에서 정점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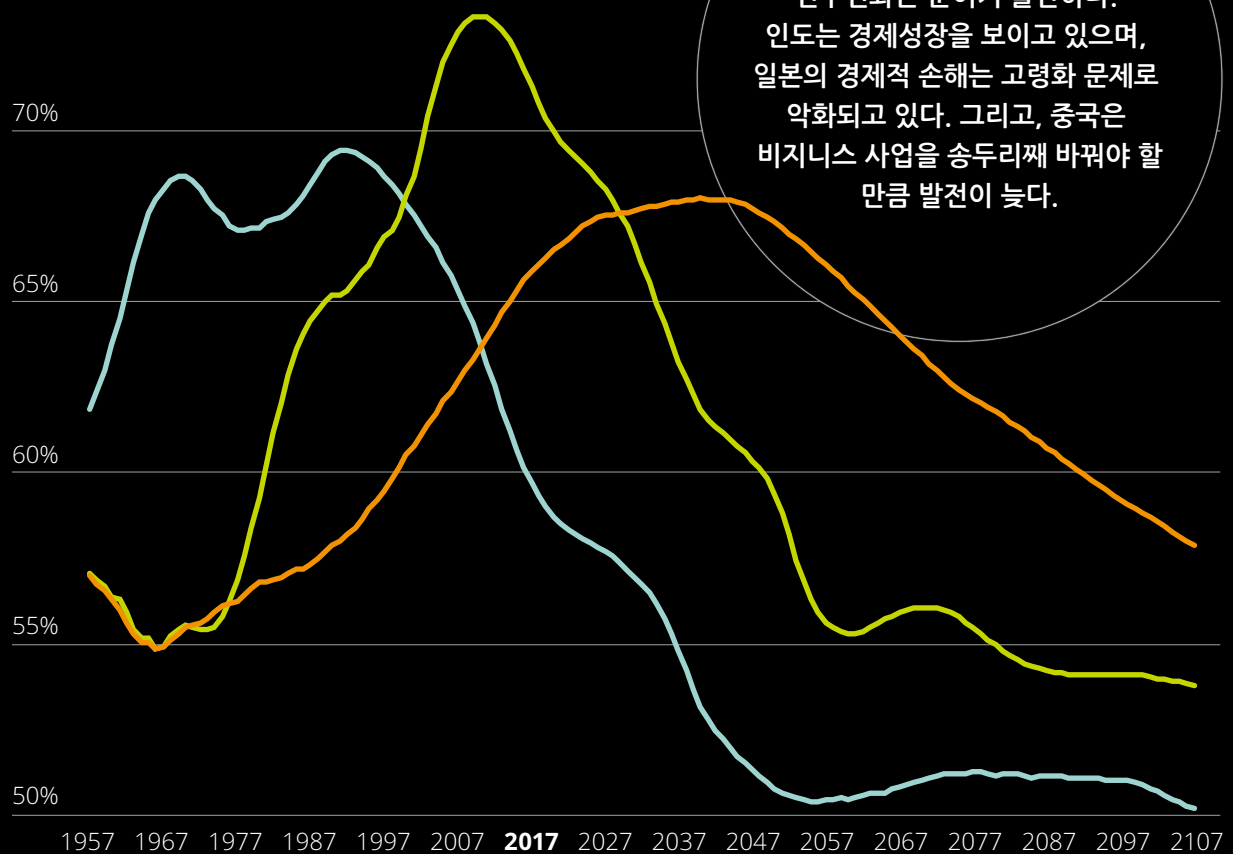
중국이 주도한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이래로 그 어떤 사건보다 크게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아시아의 성장을 이끄는 거대한 제3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아시아는 세계경제와 그 성장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표 1.1은 아시아 3대 경제대국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와 감소를 보여준다.¹ 이 단순한 총인구(수요) 대비 노동자(잠재 생산력) 비율은 신기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추이를 보여준다.

표 1.1.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 일본, 중국, 인도

75%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인구변화는 눈여겨 볼만하다.
인도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적 손해는 고령화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비즈니스 사업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만큼 발전이 늦다.

■ 일본 ■ 중국 ■ 인도

출처: United Nations, 2017
Deloitte Insights | Deloitte.com/Insights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개의 물결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제3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인도가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전면에 부각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구통계에 의한 이익의 양분화

아시아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이처럼 거대한 인구통계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보다 더 큰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표 1.1에 나타난 세 가지 거대한 물결은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물결은 경제 변화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징후가 되기도 한다.

국가들이 고령화되는 데는 원인이 있는데,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사람들이 가난할 때,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빈곤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아사망률에 대한 보험이자 부모의 노년에 대한 보험, 즉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다양한 일이 발생한다. 가령,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가 하면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물결이 상승하는 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추가적인 성장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물결이 하락하는 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표 1.1에서는 국가가 부강해지는 다양한 속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인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 요인은 생산가능인구에 변화를 주기 보다는 노동력(취업 인구의 비중)의 규모를 바꾼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인구통계적 동향에 따라 움직이며, 좋은 기회와 맞물리기만 하면 각국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잠재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인구통계의 개선에는 보통 (1)잘 훈련된 노동력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2)여성 노동력이 증가할수록 생산가능인구 내 참여도가 증가하며 (3)퇴직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15~64세 범위 외 다른 연령대의 노동력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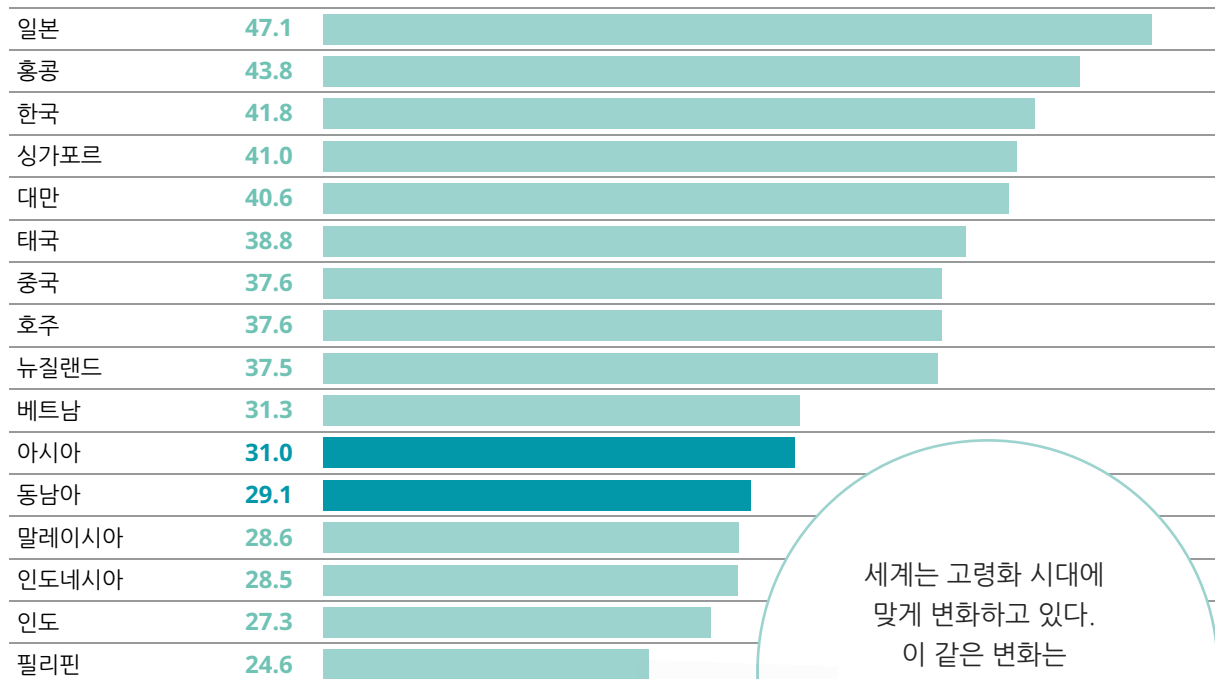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추세 중 일부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일례로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긴 하지만, 더 많은 교육을 받는 만큼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노동력 참여도도 낮아진다.)

따라서 1950~1960년대 일본의 상대적인 인적 파워의 증가는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요인 덕분이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들 요인은 감소하는 노동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구통계적 영향에 정책 요인이 추가됐다. 즉,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 덕분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인적 파워의 물결 속도가 그 시작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노동자 수나 인구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동 참여도 증가가 수반된 것이다.

표 1.2. 2017년 인구 평균 나이



출처: Deloitte, based on United Nations, 2017
Deloitte Insights | Deloitte.com/Insights

세기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고무적일 수 있지만,
인구통계학적 예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고령 인구의 섬 일본 - 사라지는 노동자

1990년대 초 일본은 스위스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고령화된 국가가 됐다. 그로부터 25년 후 일본의 평균 연령은 47세 이상까지 올랐다(표 1.2 참조).

오늘날 일본 국민의 평균 연령은 1950년대보다 25살이나 많아졌다.

이러한 평균 연령의 증가는 어느 정도 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국민의 평균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 여성은 일생 동안 1.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명 및 이민자의 도움 없이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는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낮은 이민자 유입율과 결합하여 저(低)출산율은 지금 일본의 잠재적 노동자의 공급을 중단시키고 있다. 15~64세 인구는 1990년대에 9천 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7천 5백 만 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UN은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가 21세기를 거치면서 1990년대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소를 21세기의 실제 “인구 폭탄”²으로 보며 고령화가 주도하는 경기 침체와 노동자수 대비 퇴직자수의 증가로 일본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 또한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많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자 정책을 조정한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유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소 폐쇄적인 일본의 이민자 정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못 주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응집력(2011년 3월에 발생한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등의 3중 재난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한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분열과 불안이 증가하면서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 비해 일본은 자국의 정책을 어떻게 고수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일본 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중 하나가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하락이다. 일본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1900년대에 연평균 3~4%였던 것이 현재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수의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진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채는 연간 국민소득의 두 배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안정적인 자금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노인의 혜택을 줄이거나 젊은 세대의 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인구 고령화는 이러한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세대의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다수(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건강한 국민들의 상태(일본인은 다른 선진국보다 약을 적게 복용함)로 인해 완화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본의 변화하는 인구통계적 구조로부터 비롯된 예상치 못한 문제는, 1980년대의 눈부신 발전과 그에 따른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 은행, 정부는 이러한 발전 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인구통계적 변화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에 어렵지 않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실제로 인구 주기는 변했고 많은 투자 건이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실 대출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들이 참고해야 할 또 다른 교훈이다.

늘어나는 호랑이들

일본이 평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인구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앞섰다. 실제로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억 5천 만 명 이상이며 산아제한 정책의 등장은 다음 세대의 인구가 훨씬 축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나머지 아시아 지역 이야기의 대부분도 중국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출생률을 보인다(일부 자료³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 상위 5개 국가 중에서도 상위 3개국이다).

위 5개국은 인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할 것이다. 표 1.3은 인구 증가와 감소의 흐름에서 이들 국가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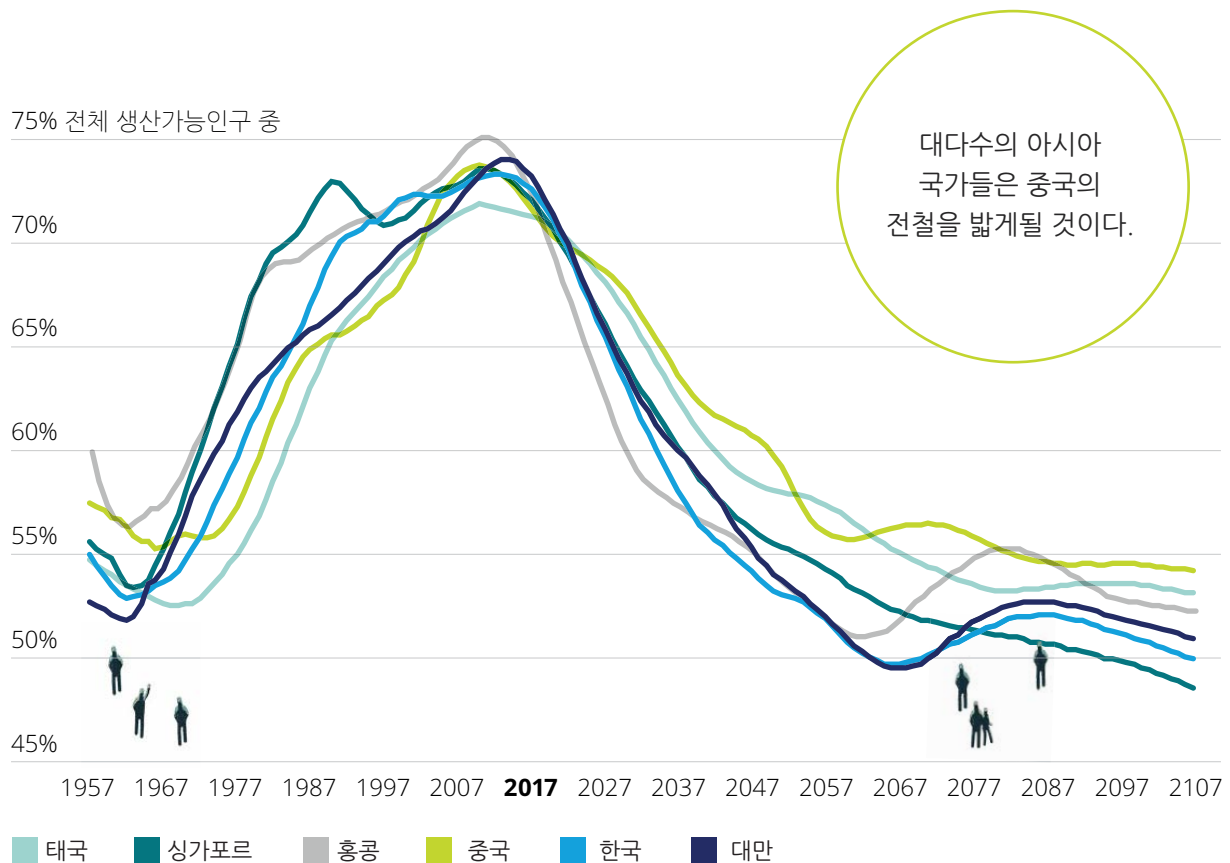
중국의 평균 소득이 아시아 선진국의 평균 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유사성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수십 년 간 중국 이야기의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인구통계가 앞만 보고 전력질주를 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고령화되는 데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고령화 시간을 앞당겼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더 높게 증가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1980~1990년대 출생률 감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출생률 감소 및 최근 몇 년간 출생률 증가와 관련된 정부의 무능이 오히려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와 고령화는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고령화가 고소득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크게 앞당겨 진다는 것은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는 뜻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중국이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중국의 장기적 인구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적인 노동력 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아제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두 자녀 이상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한 자녀라도 가지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3.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중국



출처: United Nations, 2017
Deloitte Insights | Deloitte.com/Insights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경우다. 즉, 성장을 감소, 정부의 재정 적자 악화,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압박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가 일본 인구의 10배이고 중국이 견고한 사회 보장제도를 갖추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고령화, 특히 중국에서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큰 폭의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⁴

이는 결국 인구통계의 결과로서 창출된 사업 기회(다음 기사, “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에서 다룰 것이다)가 중국에 적용되면, 태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에서 예상될 수 있는 사업 기회와는 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 모두는 지난 50년 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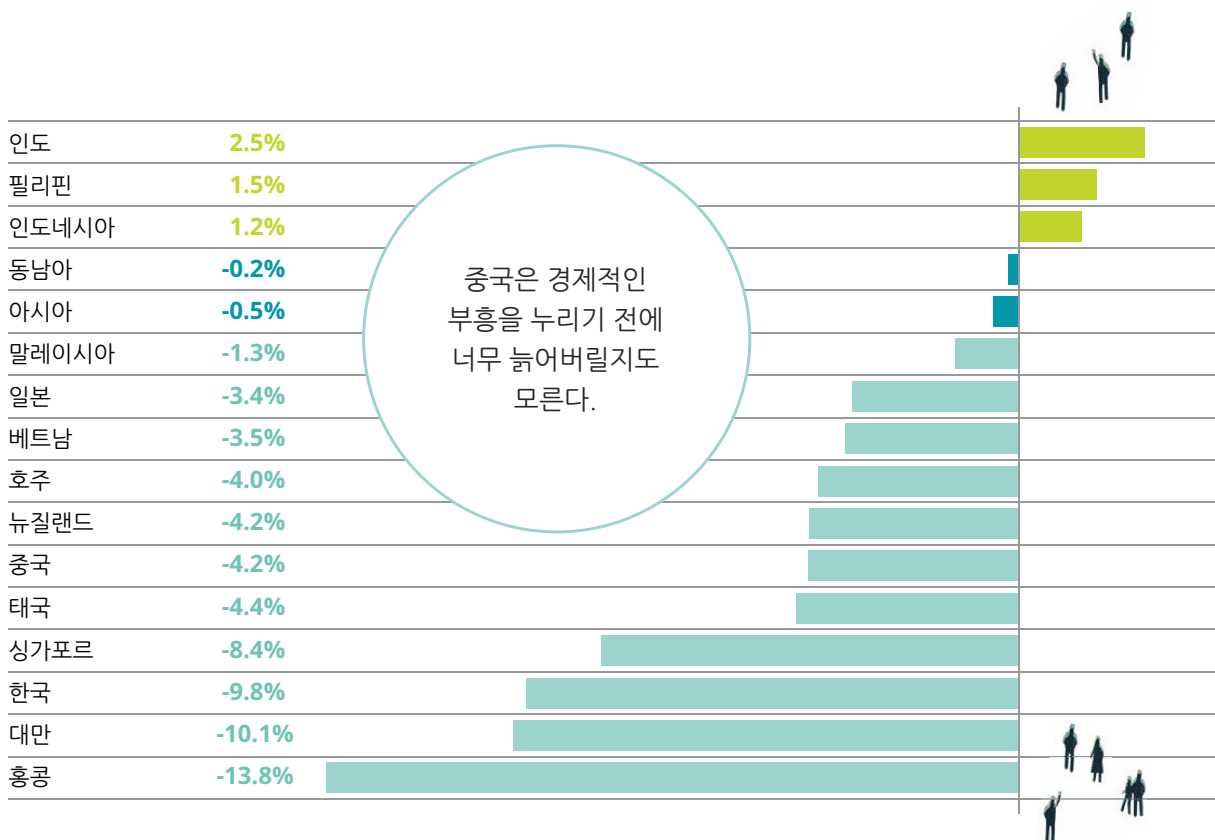
또한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한 경제 성장의 일부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확장시킨 인구통계적 상승세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 방향을 틀 태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의 생산가능인구는 몇 년 전 총 인구 대비 정점을 찍었고, 이러한 인구통계적 정점의 양상은 지금 한국과 대만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인구의 평균 연령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다음 순위에 포진해 있다.

이러한 흐름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 국가 각각은 지난 50년 간 인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향후 50년 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영향 중 일부는 늦게 나타날지 언정 그 외 다수의 영향은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다.

표 1.4. 인구통계적 관점에서 향후 10년 간 경제 규모의 증가/감소



출처: Deloitte
Deloitte Insights | Deloitte.com/Insights

표 1.4는 인구로 인한 손실(또는 인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전망한다. 이러한 산출 결과는 다른 것은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 인구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경우 경제 규모가 비례적으로 커짐(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 현재와 2025년 사이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경제 규모가 작아짐

위 표에는 중요하지만 암울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표 1.3에서 언급된 나라들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가령 홍콩에서의 사업 환경은 퇴직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10년 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⁵ 홍콩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기존의 120만 명에서 2027년에는 190만 명으로, 2037년에는 2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홍콩의 아동(14세 이하) 인구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홍콩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아동인구수가 약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들어서 출생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러한 과거의 추세는 은퇴하는 노인 세대의 수가 일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수를 추월하게 만들며 향후 경제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수적인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많은 청년들은 가능하다면 홍콩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어했고,⁶ 이는 새로운 노동자의 장기적 활로를 위태롭게 하는 질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홍콩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국가 각각은 자국의 인구통계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1980~1990년대에 아시아의 호랑이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늙어가는 호랑이가 되었고, 이들의 경제성장은 부적절한 인구통계적 구조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정책적 과제는 “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에서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개방적인 이민자 정책,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유도 등 다른 성장 동인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스위스

표 1.5에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10년간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이 맞닥뜨린 것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인구통계에 의한 경제 둔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를테면 호주는 무엇 때문에 향후 10년 간 일본보다 인구통계적 위험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인가?

차이점은 아주 간단하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난 10년간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 인구통계적 하강 기류를 미리 감지하고,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는 향후 고통을 겪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이러한 현실을 예전부터 겪고 있었다. 반면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앞으로 크게 다가올 역경이 이제야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호주는 1962년 이래로 총 인구 대비 잠재적 노동자 비중에 비례해 얻은 인구통계적 이득을 2042년에 모두 상실할 것이고 뉴질랜드에서는 같은 일이 2057년에 발생할 것이다.

숨어 있는 용의 인구통계 구조, 인도의 것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의 남은 시간 동안 아시아 인구통계적 변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타난 동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시아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인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따를 것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전망은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적용된다.

표 1.6의 선들은 유사한 경로를 보여주긴 하지만 각국의 이야기는 약간 다르다.

말레이시아는 이 나라들 중 가장 발전된 나라로서 인구 통계적으로도 가장 앞서있다. 1962년에 말레이시아 사람 2명 중 가까스로 1명만 생산가능인구에 속했다. 그러나 현재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정점에 달해 70%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인구 통계적 변화는 비교적 완만할 것이고 2050년대까지는 고령화의 영향이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20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는 생산가능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겪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변화된 출생률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2050년대를 지나면서 이 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출생률에서의 더딘 감소와 기대수명에서의 완만한 증가로 향후 수십 년 간 상대적으로 온화한 인구 통계적 조류를 경험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보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은 국가이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인구통계는 2030년대 중반까지 경제 성장에 대해 역풍보다는 순풍으로 작용한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순풍에서 역풍으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잔잔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이라면 말레이시아의 활공 경로는 험난해졌지만 인도네시아의 활공 경로는 무난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21세기 후반부에 인도네시아는 평균보다 젊은 국가로 위상을 유지하며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과 경쟁을 할 것이다.

표 1.5.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 호주와 뉴질랜드

70%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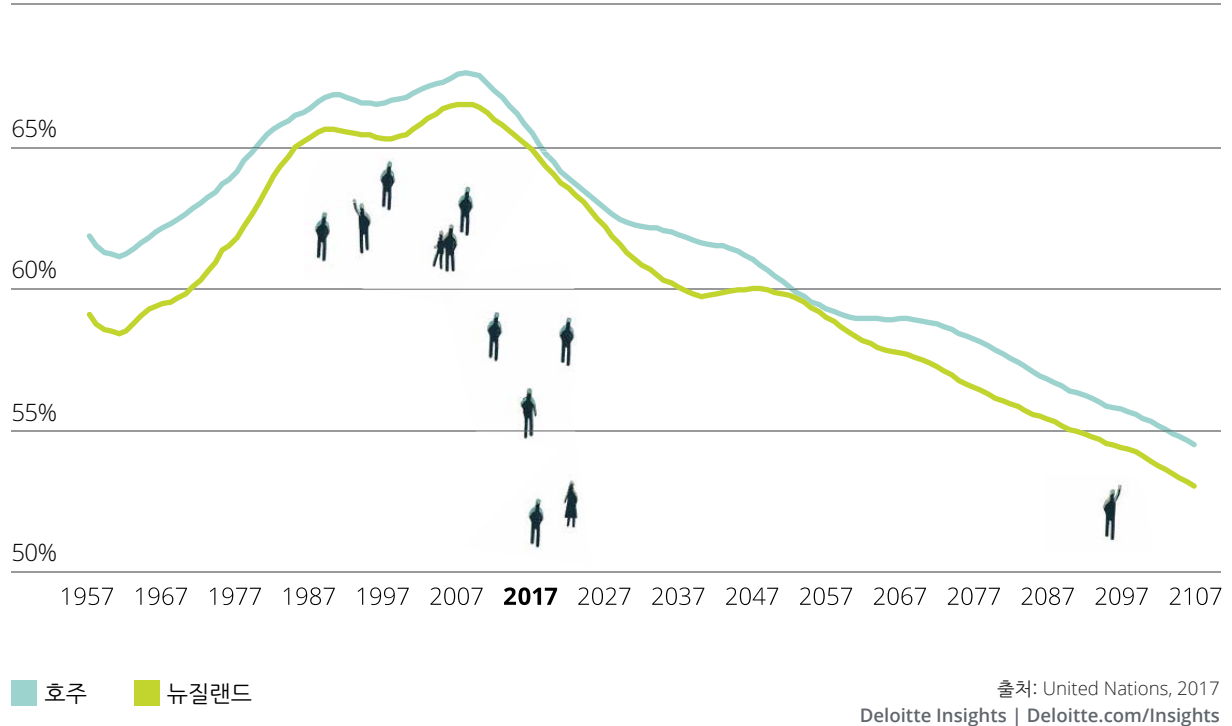


표 1.6.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70%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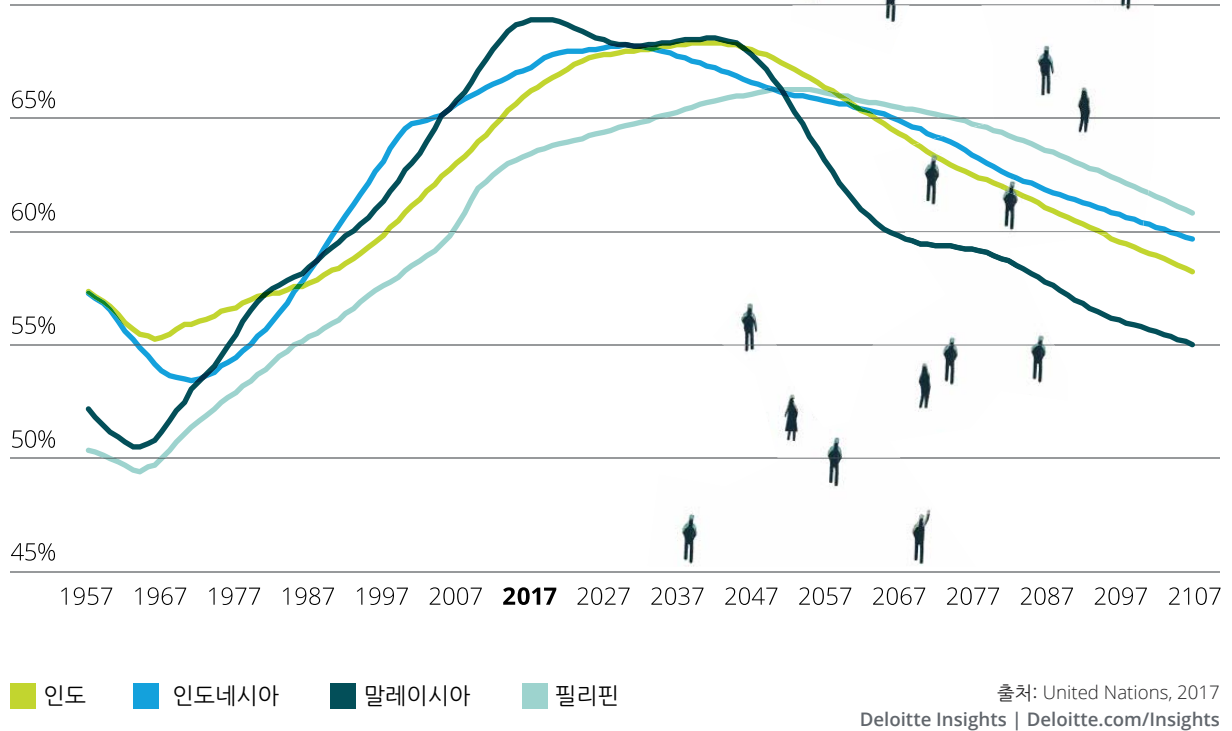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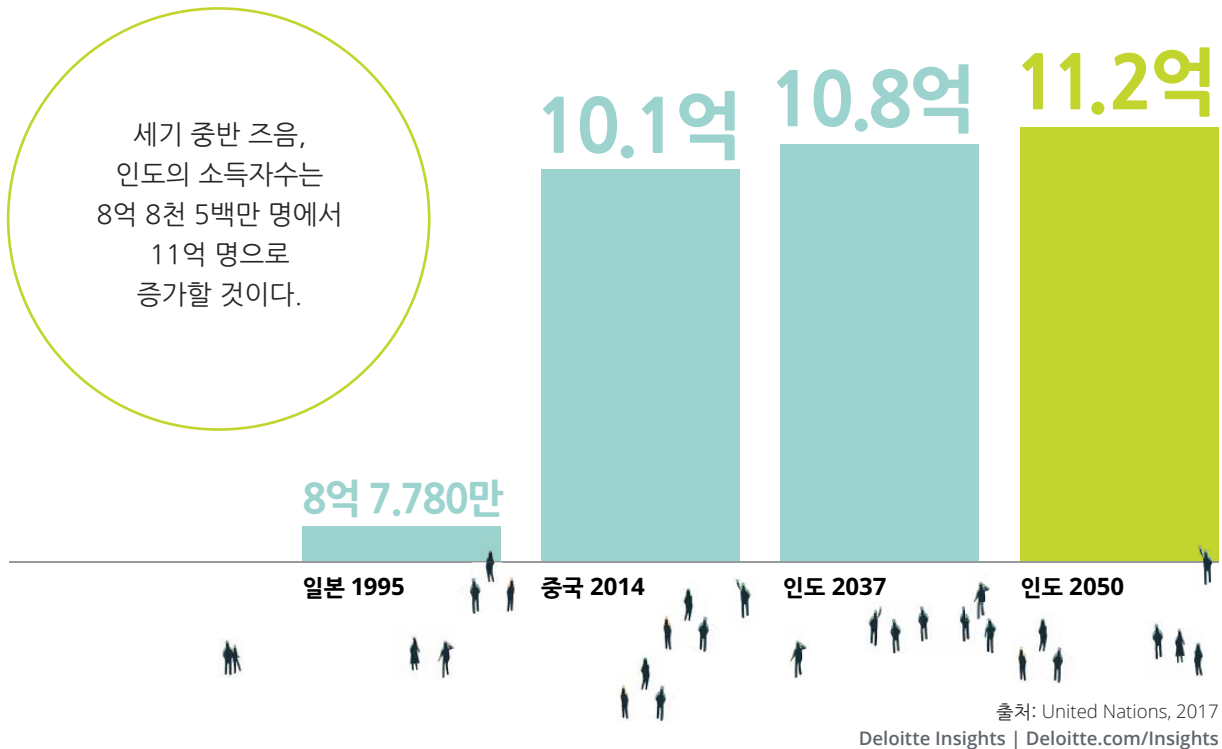


표 1.7. 국가별 최고 잠재노동력 정점 시기 - 일본, 중국, 인도



반세기 동안 지속될 인디언 서머(Indian summer)

표 1.1은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으로 퍼져 점차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의 세 가지 거대한 성장 물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표는 이들 물결의 절대적인 규모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들 간 차이점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5년 전 즈음 9천 만 이하의 잠재 노동력으로 정점을 찍었다. 표 1.7은 중국 노동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10억 이상의 잠재적 노동자를 보유한 중국은 일본의 10배 이상의 노동력을 자랑하는 단연코 최대 규모의 노동력 보유국이다.

최근 수십 년간의 중국의 급부상은 사실상 전세계를 움직였다.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적인 잠재력도 있다. 중국의 인구 통계적 조류가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변화와 보유한 자산을 풀어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개혁 잠재력은, 향후 10년 간의 성장 속도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을 두 번째 순위에 올려 놓았다.

중국을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다. 향후 10년 간 중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나라가 인도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의 인적 파워 물결이 향후 더 높은 정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도의 잠재적 노동력은 8억 8천 5백 만 명이다. 그러나:

-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수치는 지금으로부터 20년쯤 후 10억 8천 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50년간 10억 명을 상회하는 노동력을 유지할 것이다.
- 이 새로운 노동자들은 기존 인도 노동력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을 것이며, 이 외에도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향상된 생산 능력,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경제적 잠재력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인 인구, 생산참여도, 생산성 모두가 인도에서 크게 증가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다음 수치만 봐도 인도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

- 향후 10년 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1억 1천 5백 만 증가하여 아시아 전체에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 규모인 2억 2천 5백 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 같은 시기에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5백 만 명 이상,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천 3백 만 명 감소할 것이다.
- 이 시기 이후의 10년, 즉 2030년대 중반까지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7천 8백 만 명이 추가될 것이나, 일본의 경우 7백 만 명이 감소하고 중국은 급격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7천 7백 만 이상이 추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50년은 전 세계 경제대국의 얼굴을 갈아치우는 인디언 서머(Indian summer)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달리 보면 기회)이 있다.

“국가의 부강”은 보장되지 않는다. 인도는 자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인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의 증가하는 인구는 실업을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종종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 시장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인도 여성의 사회 진출은 37%에서 27%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수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비단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필리핀, 일본 모두에서 200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 중에서 특히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낮으며, 이는 인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제적 잠재력이 많다는 데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본 기사에서 나타난 잠재력을 능가하는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인도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낮은 국가다.⁷ 이는 두 번째 기사 <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의 인구통계적 주기는 다른 나라보다 약 10~30년 뒤쳐져 있다. 이는 국민소득 수준에 있어 다른 나라를 따라잡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도의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점이 있다.

- 첫째, 인도의 생산가능인구 대 비(非)생산가능인구는 브라질과 중국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과 중국은 모두 25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⁸
- 둘째, 인도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정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 면에서 변동성이 적다는 것이다. 성장 동력의 가속과 감속 모두가 더딜 것이고, 이는 인도의 인구통계적 구조가 오랫동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10년...가드(Guard)의 교체가 일어날 시기

아시아의 성장 동력은 중대한 변화의 지점에 있다.

200년 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중국은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중국이 잠에서 깨면 전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많은 대국들 사이에서 동요와 웅성거림이 일고 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과 기회를 형성한다.

본 보고서는 변화의 근본적인 힘, 즉 인적 파워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경제적 능력 면에서 일련의 폭등을 주도함을 주장한다. 첫 번째 물결인 일본 이후, 지난 40년간 중국에서 나타난 두 번째 성장 물결은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에서는 인도가 전면에서 무대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 경제대국으로서의 인도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감지되려고 하는 시점인 셈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인도의 추가적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생산가능인구의 밀물을 목격한 것처럼 인구 변화의 경로가 영원한 성장의 길은 아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퇴직자 증가의 여파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중국 및 호주 같은 부류의 나라들은 일본과 같이 인구통계적 영향으로 인해 경제 발전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영향들은 전 세계 기업의 각본을 다시 쓸 것이다. 성장의 수준과 유형 모두가 새로운 기회와 위험,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구 증가는 종종 우려의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75억 명에서 21세기 중반에 100억 명으로 증가할 전 세계 인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단지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 기사<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에서 주지하듯 아시아의 젊은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생활방식보다 서구의 라이프스타일을 열망한다.

이러한 열망은 글로벌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는 한편 걱정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Output)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인풋(Input)을 더 적게 투입함에 있어서 놀라운 진보를 거듭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소비자 지출이 더 명백하게 증가했을 때에나 비로소 인지되는, 망각하기 쉬운 양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이러한 인구통계적 흐름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래의 요구사항을 포용하면서(이것을 무시하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다음 기사 <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에서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기업이 다가오는 변화에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기업들이 강력한 성장 분야가 제공할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인구고령화가 가져다 줄 난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1. There are a number of figures detailing past and future population trends in this edition of Voice of Asia. All results are taken from recently released United Nations Population projec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
2. For example, in Ben Wattenburg's 2004 book *Fewer*.
3. These results are from estimates of 2016 total fertility rates (TFRs) estimated by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year_high_desc=true
4. BIS Working Papers No 656, by Charles Goodhart and Manoj Pradhan, *Demographics will reverse three multi-decade global trends, 2017*: "Between the 1980s and the 2000s, the largest ever positive labour supply shock . . . led to a shift in manufacturing to Asia, especially China; a stagnation in real wages; a collapse in the power of private sector trade unions; increasing inequality within countries, but less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deflationary pressures; and falling interest rates. This shock is now reversing. As the world ages, real interest rates will rise, inflation and wage growth will pick up and inequality will fall."
5. Richard Morrow, *Hong Kong budget fails to address pension savings issue*, *Asian Investor*, 2017, <http://www.asianinvestor.net/article/hong-kong-budget-fails-to-address-pension-savings-issue/434096>, accessed June 30, 2017
6. South China Morning Post, *Four in 10 Hong Kongers want to leave city, with some already planning their exit*, 2016, <http://www.scmp.com/news/hong-kong/education-community/article/2027021/four-10-hongkongers-want-leave-city-and-1-10-has>, accessed June 30, 2017
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dia: Why is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dropping?*, 2013,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04762/lang--en/index.html, accessed June 30, 2017
8.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2016-17*, 2017, <http://indiabudget.nic.in/survey.asp>, accessed June 30, 2017



인구변화로 변곡점에 선 아시아의 성장률

딜로이트는 정기적으로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전역의 약 60개 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 사이에서 전통적인 위험(경제 및 정치적 상황에 의한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위험(와해성 기술이나 사이버 공격 및 테러로 인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실제로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경제 전반뿐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 중 일부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헤아려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호 첫 번째 보고서인 <늙어 가는 호랑이, 숨은 용(Ageing Tigers, hidden dragons)>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1/4 세기에 걸쳐 목도하게 될 두 가지 중대한 변화 즉, 인도의 치솟는 성장 잠재력과 정점에 달한 중국의 노동인구에 대해 고찰하고 이 같은 변화가 만들어낼 파장을 살펴보았다.

세계는 '고령화 시장'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눈 뜨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경우 기업들은 시장 성장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물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인구학적 운명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듯 미래는 녹록지 않겠지만 아시아의 인구학적 운명에 따른 파장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 글은 인구변화를 눈 앞에 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잠재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인구학적 운명에 도전 받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도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인구학적 도전은 얼마나 거대한가?

표 2.1과 같이 고령화는 아시아 전체의 화두이자 곧 들어 닥칠 문제이며, 고령화로 인한 여파는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훨씬 두드러질 것이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들의 수는 2017년 3억 6천 5백 만 명에서 2027년에는 5억 2천 5백 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북미 대륙의 총 인구보다 많다. 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 세기 중반 이후에는 10억 명을 넘어설 것이다. 실제로 2042년까지(불과 1/4 세기 안에) 아시아에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유로존과 북미 인구의 총합을 웃돌 것이다.

그렇다. 읽은 그대로다. 지금부터 불과 25년 안에 아시아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는 북미와 유로존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아시아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은 얼마나 거대할까? 표 2.2는 향후 10년 간 아시아 전역에서 인구학적 운명이 경제에 미칠 여파를 비교하여 보여준다.¹

이 표는 생산자(15~64세의 노동자)와 소비자(총 인구)를 인구학적 경계선으로 구분했다. 이 결과는 전반적인 시장이 향후 10년에 걸쳐 어디로 향하는 지를 조명하는 간단한 순위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존재한다. 표 2.2의 결과와 비교해 고령화 효과를 축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퇴직 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늦게 일을 시작할 뿐 아니라(더 오랫동안 공부하므로) 일을 손에서 놓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의 힘든 육체 노동이 줄어들었고 수명 연장으로 일하는 삶도 길어졌으며, 소득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늦은 은퇴를 바라지는 않지만 수명이 연장에 따라 많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늦게 은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이미 각국 정부들은 경제 잠재력을 키우고 고령화로 인한 공공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표 2.2의 전제(15~64세 인구가 잠재적 노동력을 충분히 대표한다)는 고령화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일 수 있다.

- **일하는 여성이 늘어날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유급 노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남자에 비해 훨씬 적다. 따라서 인구 변화에 따른 경제 하강기류는 노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의 억눌린 잠재력을 해방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억눌린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이 글의 종반부에서 재차 언급하겠지만 인도의 잠재적 이득은 수 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민으로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앞선 인구 전망은 국가 간 인구 이동을 이미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여파가 너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전제된 수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동인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이 가정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전망한 대로 일본의 인구는 현 세기 말에는 현재에 비해 1/3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
- **연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됐듯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연륜은 지식이나 열정의 상실을 보완할 수 있다.
-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아니다. 행복은 평균 소득과 생활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인구나 경제활동 참가율에 못지 않게 최종 결과에서 큰 몫을 갖는다는 의미다. 앞서 많은 노동집약적인 일자리(이를테면 어린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을 법한 일자리)들은 앞으로 수년 안에 자동화 기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 세계 정부들은 성장의 핵심 토대로 교육과 기술에 오랫동안 초점을 맞춰왔다.
- **따라서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나듯이 인구 고령화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과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생활 수준은 미국만큼 빠르게 향상됐다.

표 2.1. 총 인구 대비 노동연령 인구 비중 - 아시아와 글로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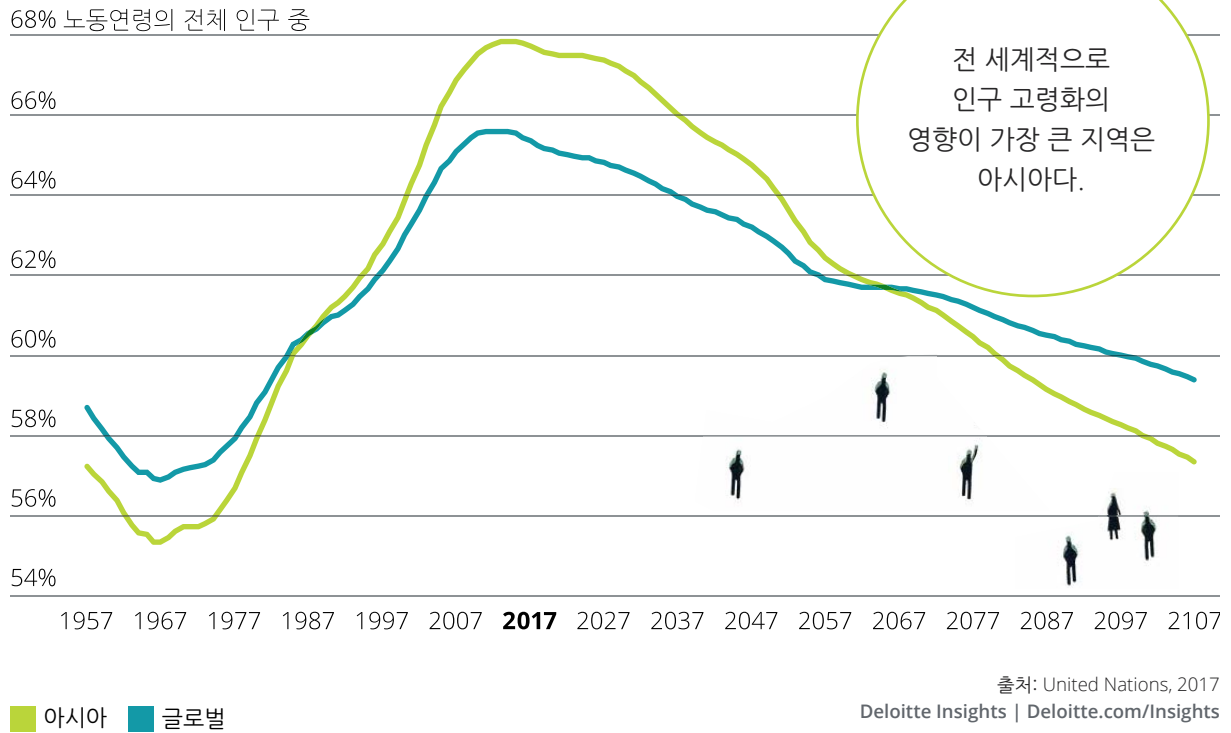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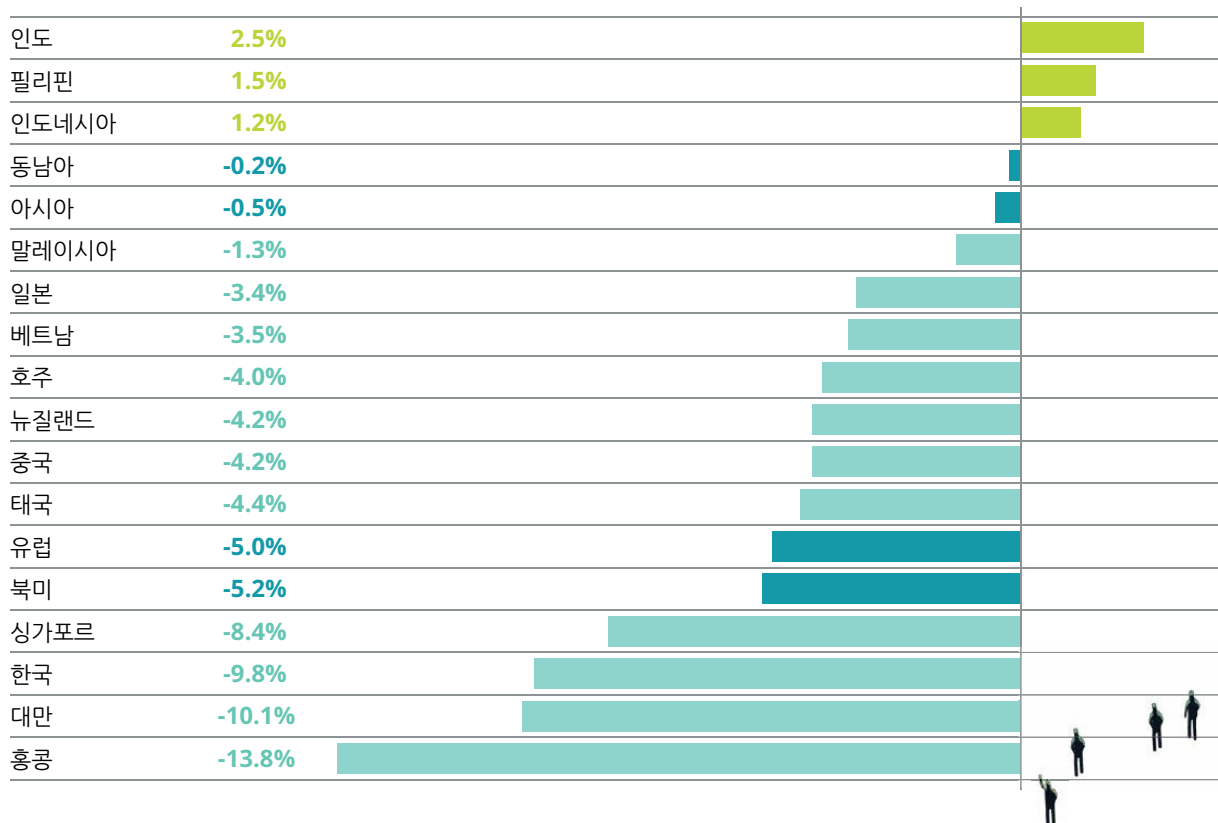


표 2.2. 향후 10년 간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위축



그렇다면 표 2.2과 비교해서 고령화 효과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특정 변수들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와 나란히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선순환과 악순환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인구변화는 보통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 및 교육 증진과 연관된다. 일부 국가는 인구학적 과제에 맞닥뜨렸지만 세계는 아직 인구변화가 하강기류를 타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 **이민자도 늙는다:** 이민은 국경 안에서 고령화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영원하지 않다.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다. 또한 국제적인 불신의 시대에서 현지 사람들은 “바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경계한다.
- **생산성 저하와 위험 감소 위축:** 앞서 말한 긍정적 변수에는 지식이나 열정의 상실을 보완한다는 연론의 이점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이런 결론을 내린 연구들은 주로 개인을 살핀 경우다. 주(州)나 국가를 보았을 때에는 사정이 달랐다. 일례로 랜덤포레이션 연구원들은 서로 다른 고령화 속도가 미국 각 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² 그 결과 고령화가 전반적인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표 2.2에서 나타난 직접적인 인구학적 영향에 비해 두 배 이상 컸다. 평균 연령이 높은 주는 생산성도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 기금(IMF)의 연구 역시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생산성을 끌어내린다는 결과가 나왔다.³
- **금융 버블은 생성됐다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변화가 성장 동력이 될 때 양호한 성장률이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에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인구변화가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면 기업과 정부, 시장에겐 충격이 될 수 있다.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산 가격이 붕괴될 수 있다.

고령화가 가져올 추가적인 과제들도 있다:

- **재정 부담:**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는 노동자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어린이(교육과 건강)와 노인(건강과 간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정부 수입 증가를 제한하고 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 예산에 압박을 가한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의 예산 부족액은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를 통해 해결해야 되므로 경제 성장을 짓누른다.
- **‘백발 표상’의 부상:** 국가의 전체 경제가 성장을 하락으로 영향을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예산을 축소할 경우 문제 해결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근 선거에서는 노년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변화를 억제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를 종합할 때 표 2.2는 많은 나라의 사업전망 전반에서 진행 중인 변화를 축소해 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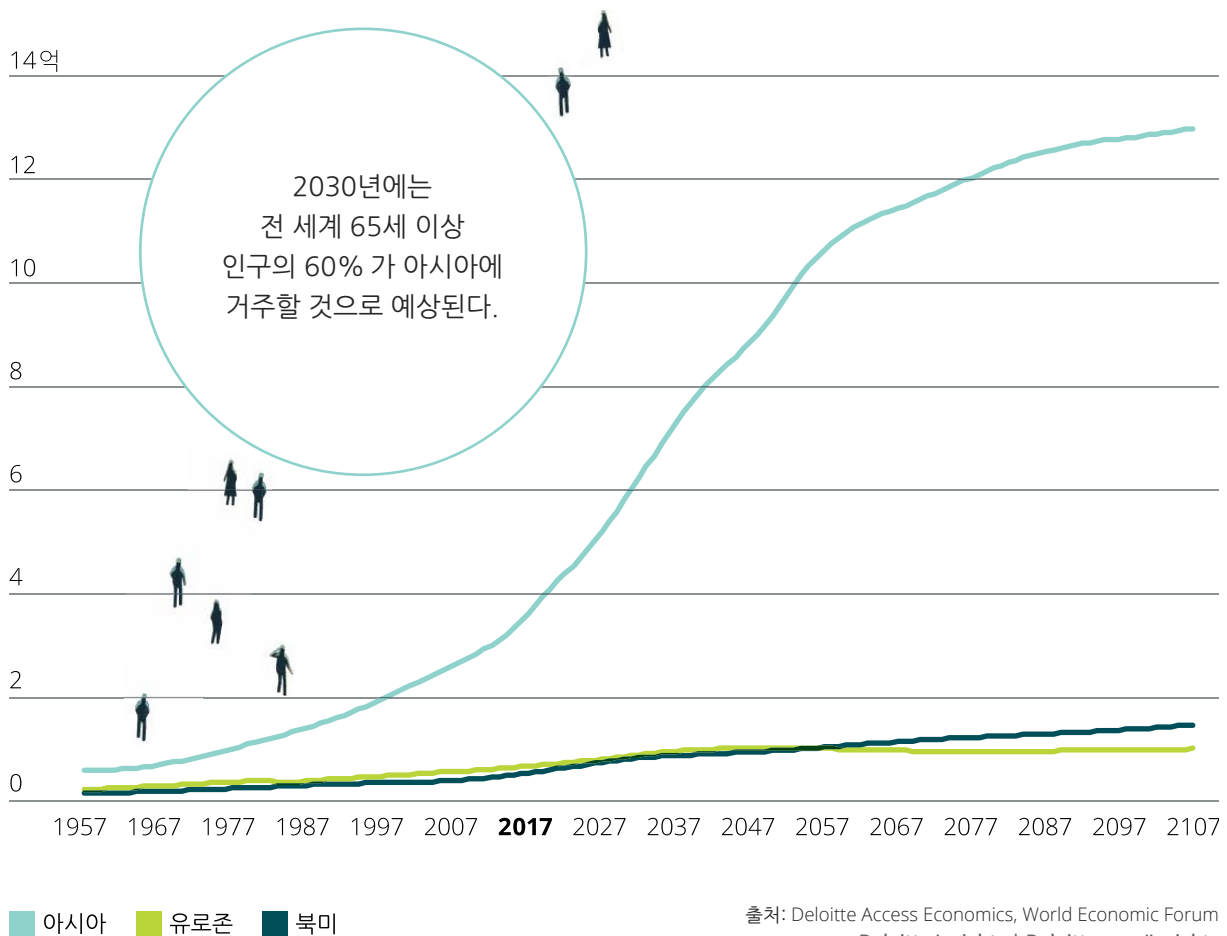
모든 도전은 사업 기회가 된다

고령화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겠지만 다양한 특정 시장은 성장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 고령화에는 비용이 따르지만 혜택도 따르며, 그 혜택은 특정 산업에 집중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나이 들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

현재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행중인 거시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나이 들고 있다.
- 우리는 부유해지고 있다.
- 새로운 기술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 공공부문 예산에 대한 압박은 점차 커질 것이다.
- 만성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표 2.3. 세계 각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수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World Economic Forum
Deloitte Insights | Deloitte.com/Insights

이 모든 것은 다양한 산업 부문이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크게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기회의 규모는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다. 2030년대까지 아시아는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중 60% 이상을 보유할 것이다. 급속도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시아가 가지는 몫도 커질 것이다.

표 2.3이 보여주듯 아시아에서 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이미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다. 아시아의 고령자 수는 현 세기 중반 5억 명에 달하면서 시장의 급속 팽창을 부채질할 것이다.

사실 고령자 시장은 이미 꿈틀대고 있다. 2027년까지 10년 동안 아시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1억 6천 명 가장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동기간 유로존과 북미의 경우 증가폭이 3천 3백 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서구의 고령화 여파를 간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아시아가 거대한 고령자 인구를 갖고 서구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그 맥락에 아시아를 두려는 것이다. 결국 사업 기회나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아시아 전역에서는 건강과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성장 클러스터 (Growth cluster)'의 발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 기회는 수명 연장, 관련 의료비의 증가, 공공부문의 의료 예산 긴축과 같은 흐름들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의료 예산 긴축은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납세자들은 다른 종류의 지출에 비해 의료비 지출에 많은 몫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예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 기회는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다.

거시적 흐름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부유해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한 지출을 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점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기술의 진보는 의료비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신약 개발로 수술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거나 기술 발달로 수술 후 회복이 훨씬 빨라지고 입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세계는 당뇨, 일부 암, 치매,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근골격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가는 변화를 겪고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거시적 흐름에 비만을 추가할 수도 있다. “고령”에 “비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 년 안에 아시아에서 당뇨병 환자는 급증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만성질환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동력이 될 소지가 크다. 아시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삶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되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질환과 함께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질병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성질환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사업 기회 중 다수는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경기 침체를 견디는” 능력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경기가 나쁠 때 사람들은 새 옷 구입이나 외식을 끊을 수는 있지만 허리 통증이나 아픈 이를 치료하지 않고 참을 가능성은 낮다.

고통은 강력한 원동력이다.

결국 이것은 고령화 시장을 겨냥하는 사업체로서는 반색할 만한 장점이다. 그들은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및 관련 부문에서 다가오는 성장 물결은 아시아에서의 지출 습관의 중대 변화를 목격하고 수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구변화가 운명”⁴ 이라면 아시아 대부분에 걸쳐 의료 및 관련 산업의 미래는 창창할 것이다. 바로 이 운명이 기업들에게 향후 수십 년 동안 확실한 성장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회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정책적 도전도 있다- 숙련 이민자 외 누구?

눈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이 있지만 아시아가 생각만큼 빠르게, 혹은 완벽하게 과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민중의 힘을 해방시키는 것:

한 나라가 현 10년 간의 인구학적 구분에서 어느 측면에 있건 간에 잠재적인 민중의 힘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을 때 시장도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상당 수준 끌어올리는 데에도 실패했다. 인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인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이들 4개국에 비해 두 배나 크고 심지어 현 세기 들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반대로 호주,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⁵

•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 인구변화로 인한 성장을 둔화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가 이민에 가장 문을 활짝 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17년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에 반대하는 측에 표심이 몰리는 한 해였다. 반면 일부 성공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지만 이민에 비교적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덕분에 향후 성장 전망에서 더 나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 이민자를 수용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적어도 인구학적 관점에서 이민이 딱히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듯 하다. 일례로 말레이시아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태국도 마찬가지다(다만 주의할 부분은 태국의 경우 불법 이주자도 상당수다). 이민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곳은 홍콩이다.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은 초기에 홍콩을 발전시켰고 계속 경제에 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숙련 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의 유입은 훨씬 엄격하게 통제된다. 결정적인 문제는 정책과 부동산 가격이 이민자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 출생률이 노동자 수에 효과를 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출생률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젊고 숙련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호주의 오랜
정책이었는데 경제 잠재력을 쌓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생산성>를 모두 끌어올리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의 정치 제도가 풀어야 할 중요한 시험은 곧
닥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 효과와 씨름하는 가운데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이민자 순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노동연령 인구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남성에게
만큼 활짝 열어준 나라들도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여성의 힘: 인도는 여성 인구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인도의 잠재 노동력은 앞으로 10년 동안 1억 1천 5백 만 명
증가할 것이다. 동기간 아시아 전역에서 예상되는 증가폭인
2억 2천 5백 만 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 '잠재력'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인도는 세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6번째로
낮다. 이것을 끌어올린다면 앞으로 수 년 동안 인도 경제는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률에 터보엔진을 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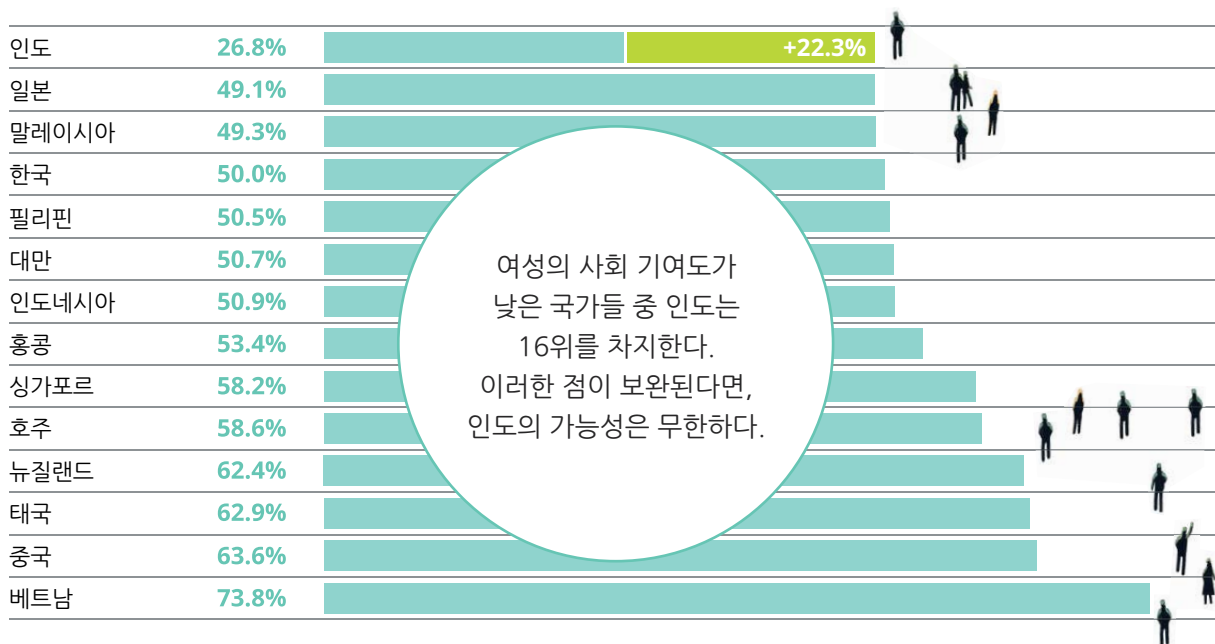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자. 하나는 인도에서 2030년대
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행 27%에 머무는
것이며, 또 하나는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일본처럼 49%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엄청난
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표 2.4에서 보듯 인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뒤에서 두 번째다.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유급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수는 거의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노동력이 추가되면서 전체 인력 규모도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을 감안
하더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인도 경제
규모는 1/6가량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 구매력을 기준
으로 연간 2조 달러에 맞먹는 수준이다.⁶

이는 행동에 나서게 만들 커다란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일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듯
오랫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려고 애쓰더라도 진전
속도는 느릴 수 있다.

표 2.4. 201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현재 ■ 인도를 일본 수준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비율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National Statistics, Taiwan
Deloitte Insights | Deloitte.com/Insights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 - ‘어떻게’와 ‘어디’

각각의 경제는 각자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에 서로 다른 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선 글 <늙어 가는 호랑이, 숨은 용(Ageing Tigers, hidden dragons)>에서는 인구 증가뿐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생활방식의 변화가 식품과 물의 수요 및 그것이 초래하는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과거의 선택에 의해 생겨 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오늘날 환경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도시화에 따른 장기적인 여파는 아시아 전역에서 꾸준히 감지될 것이다. 인구 증가는 중국을 성공으로 열어준 열쇠였지만 시골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공식 통계는 총 인구의 10%가 넘는 이들, 즉 1억 5천 만 명 이상이 시골에서 도시로의 국내 이동한 것으로 집계한다. 도시화에 따른 장기적인 여파는 아시아 전역에서 꾸준히 감지될 것이다. 인구 증가는 중국을 성공으로 열어준 열쇠였지만 시골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공식 통계는 총 인구의 10%가 넘는 이들, 즉 1억 5천 만 명 이상이 시골에서 도시로의 국내 이동한 것으로 집계한다.⁷ 그러나 다른 자료들은 실제 수치가 공식 집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⁸

도시화는 아시아 경제 전역에서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이라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일부 급속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건설 수요가 몰려서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창출되지만 반대로 발전이 지나치게 더딘 지역에서는 주거 이용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부유한 도시와 빈곤한 시골과의 격차 역시 순조롭던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또 다른 위험 중에는 인력 감소가 임금 인상 압력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제한하거나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노년층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문제들도 포함된다.

밀레니얼 세대가 해결사로?

이 보고서는 인구통계학의 거대한 조류에서 나타나는 도전 과제들을 조명한다. 그러나 인구변화가 절대적인 운명은 아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약화는 젊은 세대에 의한 충분한 생산성 개선이 뒷받침될 때 상쇄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인구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잠재 노동력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향후 10년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합류할 청년들이 인구학적 과제를 싸워 물리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이스 오브 아시아 1호⁹는 아시아 청년들이 시장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관론에 찬 새로운 세대가 오늘날 경제 방향키를 잡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기술 전문가들로서 글로벌 중산층의 국경 없는 소비에 익숙한 동시에 부모나 조부모의 소비평탄화 본능을 여전히 따르는 이들이다. 이 새로운 소비자들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며 놀라울 정도로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다.”

이것은 무척 아시아다운 이야기다. 아시아의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딜로이트가 밀레니얼 세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¹⁰에 따르면 청년들의 향후 전망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확인됐다. 개도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재정적으로나(71%) 정서적으로(62%) 부모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선진국의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응답자 중 36%만이 부모에 비해 재정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는 31%에 그쳤다.

또한 시대는 급속하게 변화한다. ‘밀레니얼’ 안에서도 ‘미니멀리스트’가 생겨나듯¹¹ 새로운 부류의 소비자가 부상한다. 미니멀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일부 가지지만 자산의 보유를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서비스를 구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려는 성향을 띤다.

미니멀리즘 경제에서는 제품보다 서비스가 선호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은 줄어든다. 그러나 미니멀리스트들은 자신의 건강, 행복, 생산성에 투자한다. 공유경제는 미니멀 세대가 도래한 원인이자 결과다.

그러나 미니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행동은 그들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일 때 훨씬 혁신적일지도 모른다. 인도와 중국 모두 노동인구에 편입될 미래 세대는 현재 노동자들의 평균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가진 힘을 해방함으로써 *보이스 오브 아시아 2*호에서 다루었던 “생산성 잠재력”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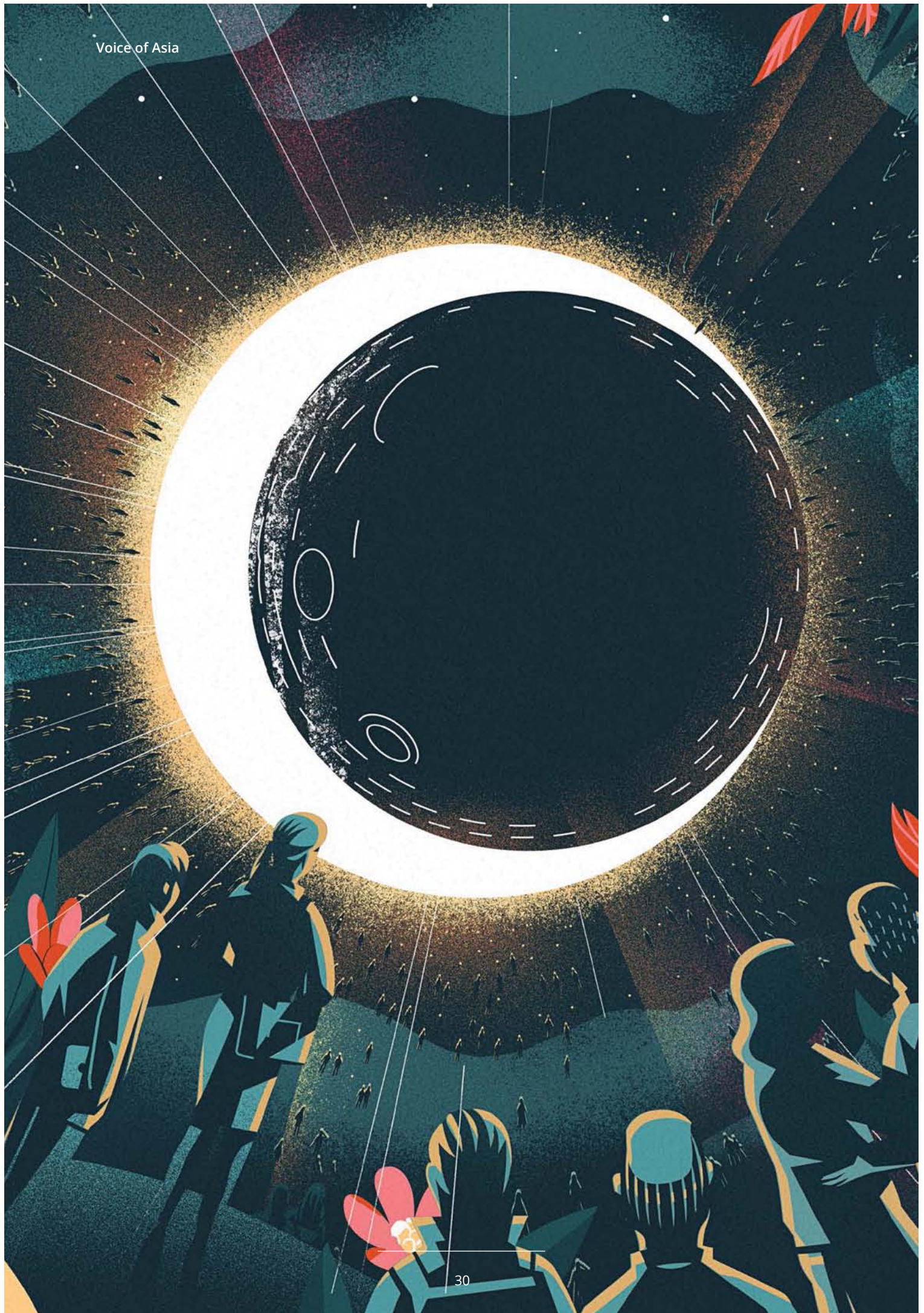
이 같은 생활방식의 변화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생산성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전체적인 경제 추세에서 인구변화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다. 향후 40년에 걸친 경제 성장률의 장기적 전망¹³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경제는 매년 5%에 가깝게 확장하면서 성장률에서 선두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성장률은 부정적인 인구변화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연평균 3.3%로 성장하면서 이 기간 전 세계 성장분에서 1/4 이상을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합치면 이 3대 아시아 경제대국들은 지금부터 현 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어떤 것들은 변화를 겪겠지만 세계의 경제 발전소라는 아시아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1. It matches Chart 1.4 in the first article in this edition, but covers the lik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s well.
2.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2016, <http://www.nber.org/aginghealth/2016no2/w22452.html>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uro area politics, July 2016,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16/cr16220.pdf>
4. Wall Street Journal, “Demographic 2050 destiny,” <http://graphics.wsj.com/2050-demographic-destiny/>
5. Most results are from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see www.ilo.org/ilostat, with the exception of Taiwan, which is sourced from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Taiwan), see <https://eng.stat.gov.tw/>
6. Based on 2011 PPP measures. As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goes further in India, the addition to India’s economy is smaller than that at market prices, but it is the US\$ 2 trillion figure that provides the more accurate assessment of the impact on world wellbeing. Note that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analysis undertaken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ILO, *Reducing gender gaps would significantly benefit women, society and the economy*,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557266/lang--en/index.htm and *How much would the economy grow by closing the gender gap?*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maps-and-charts/enhanced/WCMS_556526/lang--en/index.html
7. Cai, Fang, Yang Du, and Dewen Wang (eds.) – *Report on China’s Population and Labour*, 2011
8. Kang Wing Chan and Peter Bellwood (eds.), *China, internal migration*, 2011, <http://faculty.washington.edu/kwchan/Chan-migration.pdf>
9. Deloitte University Press, “A rich tapestry of insights,” Voice of Asia, <https://dupress.deloitte.com/dup-us-en/economy/voice-of-asia/january-2017/introduction.html>
10. Deloitte, *The Millennial survey*, See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articles/millennialsurvey.html>.
11. Minimals: A cohort of people belonging to the younger demographic within the millennials whose expenditure patterns are distinctly geared towards acquiring services rather than assets.
12. Deloitte University Press, “Asia winning the race on innovation, growth, and connectivity—powered by digital,” Voice of Asia, <https://dupress.deloitte.com/dup-us-en/economy/voice-of-asia/may-2017/winning-the-race.html>
13. OECD, “GDP long-term forecast,” <https://data.oecd.org/gdp/gdp-long-term-forecast.htm>



주목할 만한 국가별 인구통계

인구통계가 풍부한 기회와 도전의 바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 인구통계를 면밀히 검토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공통적 동향과 집단적 인사이트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이스 오브 아시아(Voice of Asia)*에서는 각 국가별로 인구 통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요청했다.

1. 각국의 인구변화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기회가 되는가?
2. 인구변화로 인해 각국의 소득/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소외계층의 양산 측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 디지털 기술은 각국의 노동력 변화를 어떤 식으로 견인하는가?

중국

비즈니스 기회

중국의 인구는 노화되고 있다. 단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젊은 인구, 즉 차세대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최근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여성들이 두 자녀를 낳도록 여론조성도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2000년 출산율 1.5명에서 2015년 1.57명으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¹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청년인구가 소폭 감소했고,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체감되는 노동력 부족은 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업계는 개발도상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고, 자동화가 가속되며,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구변화는 서비스업에는 유리하게, 제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은 제조업 강세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 제조업은 훈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으로 구성된 1급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달했으며 그 의존성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은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이 훨씬 큰 편이며, 신용거래에 대한 거부감은 훨씬 적고 디지털 결제에 대한 수용성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신만만한 젊은 소비자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는 중국의 소비지출 성장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는 가운데 젊은 소비자들의 대담함은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했다. 이런 현상의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중국은 앞으로 급격하게 닥쳐올 경기 침체를 막는데 있어 다른 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기업들이라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의료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들이 갈수록 건강문제에 민감해지고 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다.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있는 대만과 홍콩의 의료 정책을 보면 흥미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기대수명이 (각각 80과 84세²) 다른 선진국보다 높지만, 의료비용이 잘 관리되고 있다. (각각 GDP의 6.7%와 5.7%로, 중국의 5.7%보다 크게 높지 않다).³

인구 변화와 불평등

중국은 인구 변화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 애쓰고는 있지만, 정책적 해결책을 통해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 또한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 속도와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대도시에서 재산을 이미 일궈놓은 사람이 아니라면 힘든 생존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 중 다수가 이주노동자로 도시로 몰려들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지금처럼 빠르게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운 스킬을 습득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반면, 소외된 노인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인다. 이들은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도 거의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로비력도 최하 수준이다.

도시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난관은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도시 거주자들이 당연시하는 기본적인 설비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졌지만, 특정 정책은 생산성 증가에만 목표를 맞추고 있어, 교육, 의료, 계층 이동성에서 소외된 빈곤층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10억 명 이상의 잠재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분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력을 유지할 것이다.

일본

디지털 기술의 영향

중국에서 디지털 기술로 야기된 변화는 엄청난 수준이다. 급격하게 상승되는 인건비를 감안해 중국 정부는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사용해 가치사슬에서 상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로봇과 AI의 부상은 대면적 상호작용이 있는 직업보다는 반복적 업무와 관련된 직업들이 대체되면서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중국에 큰 난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수 십 년간의 엄청난 발전이 서비스분야 보다는 제조업 분야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계의 부상은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 한 에너지 대기업은 시범 목적으로 4기의 지능형 공장을 건축해, 노동 생산성을 10% 이상 끌어올렸다.⁴ 중국 남부에 있는 전하이 공장은 중국 최초의 완전 실내형, 자동화 화학 창고로 직원 수를 66% 감축했다.
- 가정용 기기를 만드는 한 대기업은 공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개조했고, 직원 수를 3천 명에서 7백 명으로 줄였다.⁵
- 최근 관심분야인 핀테크 부문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선두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흥미로운 기기들이 점차 널리 보급되고 있다. 투자와 거래도 AI로 진행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장 동향을 예측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실적도 개선한다.
-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영상, 정밀의료, 건강관리, 약물 연구와 개발 등의 보조와 같은 특정 작업을 완성하는 용도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지속적 디지털화와 더불어 로봇과 AI의 발달로 노동력을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혁신적 업무로 이동배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기회

일본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소비자의 니즈도 변하고,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방법도 달라졌다. 전반적 인구감소가 수요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인구 노령화가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증명했다.^{6,7} 즉 일부 분야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장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
- **노인용 소비재:** 일회용 기저귀, 고품질 재료에 양을 줄인 식사, 향노화 상품, 최고급의 수준 높은 크루즈 및 (또는) 기차여행
- **연령대에 맞춘 집과 사회 인프라:** 대도시 중심부에 가까운 고층 아파트, '컴팩트 시티'와 같은 도시형 디자인 개념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갖춰 작은 면적에 주거 밀도를 높임)
- **자산 관리와 유언 신탁 서비스:** 사망위험보다는 장수위험에 주안점을 둔 보험

인구노령화로 위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아졌고, 공급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음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 **노동 절약 기술:** 로봇 공학과 공유경제, AI 등
- **노령 노동자 고용 서비스:** 노동시장의 니즈에 맞춰 은퇴한 노령 인구의 역량을 개조
- **아동 돌봄 서비스:**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달⁸
- **외국인 노동자 훈련 서비스:** 일본의 이민 규정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의 역량을 훈련시키고, 일본 내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일본의 전체 인구는 연간 25만 명 감소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그 수는 두 배로 늘 것이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잠재적으로 저하되는 성장률은 통화정책이 더 느슨해지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하지만 낮은 금리와, 이로 인한 높은 자산가격은 자산이 풍부한 노인층과 수입이 낮은 젊은 세대간의 불평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⁹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노령층에 대한 청년세대의 경제적 의존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청년층은 점차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일구려는 생각이 없어진다. 즉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진다.

더구나 현금흐름 창출 보다는 자산 보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예를 들자면 대도시에 부동산 보유) 빈부격차가 세대를 걸쳐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앞으로 상속세를 대폭 올리면 완화될 수 것으로 보인다).

인구 노화와 감소 등으로 야기된 문제는 소외계층에 더 부담을 주게 되며, 사회적 균형을 더욱 해치게 된다. 이 문제 중 일부는 현재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와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 중인데, 즉 노령층을 외곽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¹⁰

인구통계적 요소는 정치적 지형도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노령층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 정부가 연금과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이는 곧 청년층에서 노인층으로 세대간 소득이전이 더 커질 수 있고, 투자 대신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디지털 기술은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자동화 주행기술은 운송부문에서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달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가정 배송 서비스에 도입된 드론 기술을 통해 오지마을 등에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에는 로봇의 노인 돌봄 기술이 좋아질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일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고, AI로 생성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기술적 발전은 일본 전역의 노인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AI는 또한 더 숙련되고 노련한 노령 노동자들이 발달된 제조 기술을 더 젊은 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혁신적 기업은 AI를 이용해 숙련 노동자들의 '암묵적 지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노령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제조업 분야, 즉 철강이나 기계 분야 등에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전통적인 행위 예술이나 농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장벽인데, 이 또한 해결될 수 있다. 최근 편리한 통역앱, 특히 스마트폰 용 통역앱이 발달하면서 다른 언어를 잘 알지 못해도 일본인과 외국인이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인도

비즈니스 기회

인도가 인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지난 30년간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¹¹ 그 영향력은 경제 전반에 걸쳐 일관성은 없었고, 일부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봤다.

광범위한 수준의 영향:

-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 기동성, 적응력,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 덕을 가장 크게 입었기 때문이다.
- 특히 IT 분야는 인도의 인구변화 덕분에 큰 이익을 봤다. 이 부문에서는 초반에 아웃소싱업을 통해 큰 기회를 얻었다. 고등교육 인프라를 통해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영어 구사 가능 엔지니어들이 대거 양산됐기 때문이다.
- IT분야에서의 성공은 인도의 교육시스템이 숙련된 졸업생을 배출해 여러 다른 서비스 부문, 즉 의료, 회계, 데이터 프로세싱, 법률 아웃소싱 등에도 복제됐다.
- 제조업 부문도 인구통계학적 요소에서 다양한 이득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이익이 일관되지는 않았고, 서비스업에 비해 뒤쳐져있다.
- 인도에서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산업인 농업부문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생산성 성장률이 약화되고 임금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한 인구통계로 국내 산업은 커지고, 회복성도 강해졌다. 인도는 이미 소비자군이 가장 큰 국가이며, 소비력과 소비 욕구 모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인도 경제는 성장이 가장 빠르기는 하나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적절한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많은 인구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조한 농업 성장률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밖으로 나오는 인구가 커지면서 도시의 인프라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득이 낮고 사회적 서비스가 제한된 도시 빈민층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 저소득 농민들, 농촌지역의 장인들, 마을 등이 환경적, 정치적 문제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은 인도의 빠른 성장을 통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불평등이 좁혀지지 않으면 인도 경제는 미래에 인구변화가 견인하는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리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은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16에서 2010년대 글로벌 성장의 주요 리스크로 불평등 문제를 꼽았다.¹²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 성장(고용과 교육과는 별개로)을 가능케 하는 필수요건은 정부 정책과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이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디지털 인도’는 인도의 새로운 야망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자영업 기회를 창출하며, 보다 저렴하게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인도 정부는 이를 최근 ‘폐화(Demonetisation: 화폐의 유통금지)’ 정책과 함께 추진하려 하고 있다. 폐화란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사용을 억제하고,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해 정식 금융업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최근의 통화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신설은 조세의무 이행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또한 매출을 키우는 도구로 디지털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특정한 틈새 사업 모델 개발에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그 좋은 예로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하이퍼 로컬(Hyper-local: 특정 지역 맞춤형) 소매업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이 둘 모두 인터넷 및 이동 전화의 보급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다. 디지털 백bones을 이용한 소상공업, 도시 서비스, 유통, 운송, 신용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통합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단기적으로라도 고용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IT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인 NASSCOM의 추산에 따르면 자동화로 인해 50~60%의 인력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40%는 재훈련(Reskilling)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¹³ 자동화는 제조 부문에서는 더욱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항공, 창고업에서부터 자동차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기계화와 로봇공학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기술이 대체하고 있는 것은 저숙련의 반복적 업무이며, 고숙련 직업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세기까지 인도의 잠재적 노동력은
8억 8천 5백 만 명에서
11억 2천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도의 기술 변화는 다음과 같은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용에 대한 단기적 위협:** 정부와 민간 기업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
- 반면, 기술변화로 섬유, 장난감, 전자제품 제조와 조립, 주택, 기반시설 등 **노동 집약적 분야에서는 인도의 인구기반을 활용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 이 덕분에 부유한 노령층, 사회적 기업 등 **특정 틈새 분야에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대만

비즈니스 기회

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들면서, 대만의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만은 가까운 미래에 고령화사회(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¹⁴

1950~2000년 사이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령층을 위한 운송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¹⁵ 노인층을 괴롭히는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수요도 높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기농 음식과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도 부상하고 있다.

노령 인구에 대한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만 정부는 '장기 돌봄 서비스 2.0'을 실시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거주지의 요양소를 2021까지 2016년 수준의 두 배인 4천 529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늘리고, 요양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¹⁶ 이 프로그램은 또한 의료 솔루션 제공자들이 거주지역 요양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한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1998~2006년 사이 대만이 노령화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실증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다세대 가족의 감소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금 이외의 부수적 수입이 없는 노령가구의 수가 증가한 것도 원인의 일부다.¹⁷ 근로소득이 없는 일부 노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연금제도와 보험 패키지의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연령인구에 비해 은퇴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⁸ 2000년 이후 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¹⁹ 기존제도에 대한 압박이 커졌고, 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노령층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 이외에도 '장기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2.0'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현지 노인들을 돌보는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⁰

디지털 기술의 영향

정부는 대만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디지털 국가, 지능형 섬나라'²¹로 변모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도 포함된다:

- **아시아 실리콘 벨리:**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생태계²²를 구축하여 대만을 아시아의 실리콘 벨리로 만들려는 목표가 있으며, 그 주안점을 이동형 생활양식, AI, 자동주행과 운항,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IoT를 위한 정보보안,²³ 동남아시아 시장²⁴ 등 여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핀테크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내각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위한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대만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금융기관과 기술 기업이 규제를 면제받고 실제환경에서 혁신적 서비스,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²⁵
- **스마트 제조업:** 정부는 스마트 기기 진흥청을 설립해 대만 제조기업들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혁신하여, 대만의 '숨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²⁶

대만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2018년에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일 것이며, 2025년에는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태국

비즈니스 기회

태국은 인구성장률이 더뎠고, 급격하게 노령화되며,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2020년 중후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이하인 2.1명도 되지 않는 충격적 저출산에 기인한다.²⁷ 태국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다. 외곽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직장 등을 찾아 방콕 등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인구변화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

- **노인 돌봄:** 의료 상품과 돌봄 서비스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노인 공동체, 은퇴노인센터, 양로원과 같은 장기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 조정:**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커지면서 태국은 의료와 웰빙 여행과 같이 노령 인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자리잡았다. 앞으로 태국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자동화를 통해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소득 및 사회경제적 격차도 벌어지고 있으며, 소외 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선진국 도달 이전에 고령화 진행:** 경제규모가 고소득 수준에 달기도 전에 노동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 **커지는 의존율:** 태국의 노령인구가 의존할 수 있는 성인인구 규모가 줄어들면서 연령 종속성(65세 이상 인구와 15~69세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 측정²⁸)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노동인구가 받는 압박이 커졌다.
- **도시-농촌간 노동인력 불균형 심화:** 불균형한 부의 재분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증폭시켰고, 이는 급격한 도시화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농촌지역에 적당하고, 값싼 직업이 부족한 탓에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된 젊은 성인 노동자들이 도심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주할 여력이 없는 노령층 또는 빈곤층만이 농촌 지역에 남아있어, 도시-농촌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태국 빈민층의 40% 이상이 동북지역에 살고 있으며, 방콕의 빈민층 비중은 5% 미만이다.²⁹

디지털 기술의 영향

태국은 미래에 10가지 산업을 개발하겠다는 태국 4.0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 디지털 기술을 개발했다.³⁰ 이 계획의 목표는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 위주의 주요 산업을 '스마트'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적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에 창의성, 혁신성, 기술 응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기술은 스킬 부족현상과 노동력 고령화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육체노동이 노령 인구에게는 지나치게 힘들기 때문에 자동화와 로봇공학이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은 노동연령 인구가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실히 제공해야 한다. 즉 현 교육시스템을 큰 폭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태국은 인구성장률이 더뎠고, 급격하게 노령화되며,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

필리핀

비즈니스 기회

필리핀 인구는 현 수준에서 10여 년간 1천 5백 만 명이 증가해 다음 1억 2천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³¹ 한편,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규모와 출산율 자체가 모두 떨어지면서 인구증가 속도는 더뎠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뱅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마닐라의 인구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³² 현재 필리핀인 45%는 도시에 거주하며, 이 비율은 2050년까지 6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³³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서는 인프라와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부문의 성장:** 도시화로 인해 주택, 기능적 운송 시스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건설! 건설! 건설(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프라 건설 지출을 GDP 대비 5.4%에서 7.4%로 증대할 계획이다. 건설 부문은 앞으로 필리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교육 개선 필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필리핀인들은 앞으로 더 질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기관 이외에도 특정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위를 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는 것이 핵심 솔루션이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청년층에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략 8백 개의 콜센터가 있고,³⁴ 앞으로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뱅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아시아 발전 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대략 4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빈곤을 겪고 있다고 한다.³⁵ 이 숫자는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도시화는 농촌 지역에 상반된 효과를 동시에 불러왔다. 노동자들이 농업을 떠나 도시에서 더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이주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노력으로 농촌의 인프라가 개선되어 수확량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의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 **정부의 개입:** 정부당국은 2040년 까지 빈곤 퇴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³⁶ 이를 통해 이 기간 동안 1인당 소득을 세 배로 늘리고 빈곤과 굶주림에서 탈피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파벌간 다툼으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필리핀계 무슬림은 총 인구의 5.6%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특히 필리핀에서도 극빈지역인 남쪽에 유난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 2015년 무슬림 민다나오의 자치 지역(ARMM: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거주민의 59%가 빈곤층으로 분류됐으며, 3분의 1이 극빈상태에 놓여 있었다.³⁷ 마라위시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 등이 근본적 경제발전을 막아 빈곤 극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필리핀의 금융기관은 효율성이 제고됐다. 예를 들어 필리핀 군도 은행과 BDO 유니뱅크는 챗봇(Chatbot)과 AI에 투자해, 백-엔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필리핀은 디지털 물결을 잘 타고 있으며, 그 높이를 더 높일 준비도 되어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인큐베이터 허브를 자랑하며, 적절한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 필리핀의 디지털 기술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QBO 이노베이션 허브 설립을 계기로, 스타트업 업과 젊은 기업가들이 이 자원을 이용해 더욱 지속성 높은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비즈니스 기회

베트남은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기는 하지만,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베트남 인구노화의 원인은 매우 전형적이다. 베트남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고(1980년대 여성 1인당 5명에서 2016년 1인당 2명), 그 반면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 1960년대에는 40세였지만 지금은 73세에 이른다.³⁸

베트남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젊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산층 계급을 활용할 뿐 아니라, 나중에 그들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산업으로서의 의료업:** 병원의 수용력, 노인 돌봄, 제약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 **부상중인 중산계급을 위한 생활방식의 개선:** 국가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찾아 대거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임금이 오르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거대한 소비자층이 생겨나 계속 성장한다. 소비재, 인프라, IT와 교육, 자동차, 주택 보급업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젊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산층 계급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인구구성이 변화하면서 그 부산물로 여러 가지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 **의존률 상승:** 출산율 저하로 전체 인구에서 아동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노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의존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성별간 불균형 악화:** 베트남은 오랫동안 출산 전 태아 감별과 선택적 출산이 이뤄지면서 2014년 남녀 성비가 112.2대 100에 이르며,³⁹ 이는 104대 100인 전세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 때문에 소녀나 젊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농촌간 불균형 고착화:** 최근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 실행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촌간, 저지대-고지대, 농촌-비농촌 부문간의 불균형은 모두 심화되었다. 이는 젊은 인구가 점차 도시로 이동하면서 빈곤층과 노령층만이 농촌지역에 남게 되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변성 중이다. 베트남은 주변 국가에 비해 ICT 산업 및 이동전화 보급률이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연구결과 베트남인의 43%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상품에 대해 조사하고 구매를 결정하며,⁴⁰ 이 덕분에 베트남에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기회가 풍성하다.

베트남의 젊은 인구가 부상하면서,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베트남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프라를 확장하고 비즈니스 운영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제조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이 노화되는 가운데, 젊은 노동력이 ICT,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활동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도입해 제조업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기회

말레이시아 총 인구는 4반세기 전만 해도 1천 9백 만 명이었지만, 2022년까지는 75% 정도 증가해 3천 4백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해 7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늘어나며, 총 인구의 7.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말레이시아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노령인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말레이시아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질환과 장애 발생 빈도도 더 높아져, 노인의료 부문에서 훈련을 받은 의료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노인 돌봄, 재활, 사교클럽, 가정 간호 등의 서비스도 개선해 노령층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보험 수요 증가:** 장기 의료 비용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노령 인구가 생명보험 등 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또한, 무슬림 인구의 성장은 종교적 조건에 맞는 식품을 제공하는 할랄 산업의 성장을 크게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랄산업개발공사(HDC: The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는 전세계 무슬림 인구가 23%에서 2030년에는 27%로 성장할 것이며⁴¹ 여기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산업마스터플랜(HIMP: the Halal Industry Master Plan)을 수립해 몇 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역량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총 가정소득을 기준으로(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포함), 지난 10여 년간 말레이시아의 불평등 수준은 완화되었다.⁴²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지출 증가:**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의 재분배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과 2014년 사이, 하위 40%의 평균 실질가구소득은 매년 11.9%가 성장해 총소득성장률 7.9%를 앞질렀다.⁴³ 이는 계층간 빈부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
- **최고소득 세율 인상:** 최고소득 구간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현 세율은 25%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한국은 38%, 태국은 35%).⁴⁴ 세율인상은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고, 개발 및 빈곤 완화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종간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개혁:** 최근 인종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인종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⁴⁵ 정부는 하위 40%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기반 정책에 집중해야 하며, 공공영역에서 인종차별적 의미가 내포된 발언과 행위 등을 근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⁴⁶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로봇 사용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8%가 증가했다.

지역 의료 생산업체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공장 자동화로 생산량을 300% 가량 늘릴 수 있다고 봤으며, 노동자 100명 분의 추가고용을 대신했고, 결함율도 80~90%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⁴⁷

65세 이상의 인구는 2022년까지 전체 인구의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기회

싱가포르는 이미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며, 출산율도 매우 낮다. UN 인구 예측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는 향후 1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15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또한 싱가포르의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밝힌 바 있다.⁴⁸

싱가포르의 인구변화 상황은 다음 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인의료, 제약, 바이오 기술, 영양제와 영양보충제 산업:** 노령층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 발병률도 높아졌고, 따라서 의료 소비가 커지면서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 **자산관리 서비스:** 노령층 싱가포르인들의 자산 보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노령층의 수요가 커지면서, 금융서비스, 보험, 법률산업의 수요창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동 및 노령층 돌봄 산업:** 노동연령층 성인의 수는 더 적어지고, 이들이 어린이나 노인 부양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아동 돌봄, 의료 모니터링 기기, 생활 보조 기술, 간호 서비스, 양로원, 호스피스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위에서 논의한 인구통계적 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싱가포르의 소득 불평등은 2007년 정점에서는 약간 나아졌으나 여전히 심한 편이다⁴⁹) 상승중인 부의 불평등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소득 격차의 심화:** 출산율 저하를 보완하려는(또한 인구 축소를 막으려는)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이민자들은 싱가포르의 ‘글로벌 시티’로서의 열망에 매료되어 온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평균 소득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최저소득층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 **부의 불평등 심화:** 싱가포르 가구의 순자산은 지난 10여 년간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부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어 싱가포르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 증식 속도가 최빈층 가구 자산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부가 편중되는 가족의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궁극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노동력의 급격한 노령화와 축소에 대한 대응으로 싱가포르는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동화, 지능형 기기,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노동인력의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기존 산업의 와해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우고 습득하지 않는 한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스킬스퓨처(SkillsFuture) 프로그램을 신설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신기술 및 신직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며, 출산율도 매우 낮다. 정부는 싱가포르의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인구배당효과'로 파생된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며,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내려가면서 노동연령 인구가 늘어나고 이전 세대보다는 부양가족도 줄어들고 있다.

노동연령 성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근의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세안(ASEAN)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도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지금까지 도시에 대한 투자는 크지 않았다. 많은 도심 주거지가 안전한 식수와 하수 시스템, 대중교통 등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 결과 오염, 공해, 재난 리스크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다음 영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소비재:** 관광, 오락, 숙박, 제조업, 교육 등도 포함된다. 노동가능 성인의 구매력이 더 강하고, 가처분소득도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축, 공익설비, 교통:** 급격한 도시화를 감안할 때, 정부가 대중교통 시스템, 항구, 공항, 주택, 공익설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런 산업들이 특히 기회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제조업 변화로 인한 기회:** 중국 내 제조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 2010년 이후 제조업 평균 임금은 80%가 상승했다.⁵⁰ 이는 곧 중국 기업들이 점점 저비용의 제조업을 포기하고 가치사슬의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러면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젊은 층이 두껍고, 인도네시아는 산업화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공장노동 평균 비용은 미화 9달러에 불과하며, 중국은 28달러다.⁵¹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추세를 이용해, 저비용 제조업을 지원하여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은 기술변화 및 수용에 있어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한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고, 부의 편중화 현상도 가장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 추세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소득과 부의 불균형 악화:** 자산과 자본이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의해 계속 점유되면서, 인구배당효과에 의한 빠른 경제성장이 가져온 혜택 또한 최상층 인도네시아인 일부만이 누리게 될 확률이 높다.
- **인프라와 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 개선:** 도시화 현상 때문에 농촌 지역에 남은 소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누리는 고용, 교육기회, 인프라 등에 접근성은 더 좋아졌다. 도시화가 사회적 평등을 제공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인도네시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말레이시아 또는 필리핀 등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일터에서의 디지털 기술 도입, 즉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 데이터의 사용도 뒤처져 있다.⁵²

인도네시아는 인구 고령화나 노동인력 축소 등의 문제는 없지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면 생산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프라가 다른 국가를 따라잡으면서 일어날 기술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 앞으로 발생할 '인구배당효과'에서 파생되는 경제 성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를 통해 진정한 성장을 견인하려면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

비즈니스 기회

호주는 급성장중인 중국과 인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장기간 큰 이익을 얻었다. 오늘날 호주는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딜로이트의 *‘행운 국가의 건설: 번영을 위한 포지셔닝 (Building the lucky country: Positioning for prosperity)’*⁵³에서 이미 고찰된 바 있으며, 특히 세 가지 분야가 호주의 인구변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기업식 농업:**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하지만, 식품 순수출 국가다. 아시아의 인구성장이 소득 상승과 겹치며 식품생산에 대한 전반적 수요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 면적이 커지면서 농업이 가능한 토지면적이 제한될 수 있다. 호주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 특히 단백질 식품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고등교육:** 호주의 유학산업은 매해 200억 호주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매출기준 4위의 수출업이며, 유학산업에 종사하는 호주인의 수도 상당하다. 앞으로의 잠재력도 엄청난데 오늘의 신흥경제가 내일의 지식경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이용해 호주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해준다면 호주는 교육과 이민 산업 잠재력을 모두 갖출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아직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분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 **자산 관리:**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은퇴 관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성장산업이 될 것이며, 호주도 이를 뒤따를 것이다. 연금자산관리금액 2조 호주달러, 고도로 발전한 금융부문, 아시아의 65세 인구 급증 등을 바탕으로 호주는 자산관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40년의 호주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인구유동성과는 다른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인구변화와 불평등

호주는 오래 전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다. 2002 세대간 보고서⁵⁴는 이런 추세로 정부의 의료 지출, 노동 공급 등이 받을 장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 이후, 호주로 젊은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노령화 과정이 둔화됐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도 나쁨의 문제가 있다. 전체 인구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호주는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고충을 겪기 시작했고,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주요 인구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증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임금 성장률이 미약한 편인데다 대중영합주의 정치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정부에 이민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

디지털의 와해적 영향력이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미래학자들이 예측해온 바이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변화는 주류 담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주문형 자동차 서비스의 증가 및 인쇄 매체의 몰락과 같은 초기 효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가 부상하면서 약화되고 있다.

현재 유비쿼터스 와이파이 기술의 창시자인 호주의 CSIRO 등⁵⁵과 같은 핵심개발자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호주는 여전히 새로운 디지털 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국적으로 연결 속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인 전국 광역 네트워크(National Broadband Network)의 구축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무엇인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인구 변화를 조망한 이 보고서는 각국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인구변화 추세, 문제, 리스크, 기회 등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제공한다.

계획, 준비 및 혁신을 위한 시간이 도래했다. 우리 모두는 인구통계 데이터와 인사이트 및 분석을 활용하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가까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1. See fertility rate (total) for China, World Bank,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CN>
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custom data acquired via website
3. Source: EIU database, accessed, July, 2017.
4. Chinanews, "Sinopec to build 10 smart factories," <http://www.chinanews.com/ny/2016/09-09/7999624.shtml>
5. "Xinhuanet, "Sneak peek into Midea's smart factory: Automation and project excellence," http://news.xinhuanet.com/tech/2016-05/10/c_128973688_2.html
6.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Aging society* [in Japanese],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7/zenbun/29pdf_index.html
7. Mizuho Bank, Ltd., Industry Research Division, *Mid-term outlook for Japanese industries* [in Japanese], vol.39, no.2, 2012,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pdf/1039_03_03.pdf
8. Japan Finance Corporation Research Centre, *New business in the era of declining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Japanese], no. 2015-4, June 23, 2015, https://www.jfc.go.jp/n/findings/pdf/soukenrepo_15_06_23.pdf
9. Japanese Bankers Association, *Financial businesses in society with declining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o support economic growth* [in Japanese], March 2015, https://www.zenginkyo.or.jp/fileadmin/res/news/news270337_1.pdf
10.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Welfare and labour* [in Japanese], October 2016, <http://www.mhlw.go.jp/wp/hakusyo/kousei/16/dl/all.pdf>
11. The Economic Survey, 2016-17, and Aiyar and Mody, "The demographic dividend: Evidence from the Indian States"
12. Nisha Agarwal, *Inequality in India: What's the real story?*,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16/10/inequality-in-india-oxfam-explainer/>
13. Pankaj Doval, "Up to 40 per cent IT staff need reskilling: Nasscom," Economic Times,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jobs/up-to-40-per-cent-it-staff-need-re-skilling-nasscom/articleshow/58746011.cms> and Nasscom, *Jobs and skills: The imperative to reinvent and disrupt*, http://www.nasscom.in/sites/default/files/Jobs_and_Skills.pdf
14.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ROC, 中華民國人口推估 (105年至150年), p.1, http://www.ndc.gov.tw/Content_List.aspx?n=84223C65B6F94D72, accessed July 7, 2017
15.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ROC, *Economic growth, national statistics*, <http://statdb.dgbas.gov.tw/pxweb/Dialog/varval.asp?ma=NA8101A1A&t=i=國民所得統計常用資料-年&path=../PXfile/NationalIncome/&lang=9&strList=L>, accessed July 6, 2017.
16.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 "Taiwan unveils new long-term care services programme," <http://www.eiu.com/industry/article/1414448925/taiwan-unveils-new-long-term-care-services-programme/2016-07-26>, 2016, accessed July 7, 2017.
17. Chun-Hung A. Lin, Suchandra Lahiri, and Ching-Po Hsu, *Population aging and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Taiwan: A spatial dimen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3), pp 757–777.
18. Ministry of the Interior, ROC, *Work age population and elderly population*, 內政統計查詢網, <http://statis.moi.gov.tw/micst/stmain.jsp?sys=100>, accessed July 6, 2017.
19.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ROC, *Economic growth, national statistics*.
20.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 "Taiwan unveils new long-term care services programme" Executive Yuan, ROC, *Asia Silicon Valley Development Plan*, http://english.ey.gov.tw/News_Hot_Topic.aspx?n=D8084014E29E8219&sms=C39B3566A41136FF, accessed July 8, 2017.
21. Ibid
22. Ibid
23. Executive Yuan, ROC (2017), *Asia Silicon Valley Development Plan driving industrial upgrades and transformation*, [online] Executive Yuan, ROC. Available at: http://english.ey.gov.tw/News_Hot_Topic.aspx?n=F11330368F5E8FFC&sms=9929E72F56DA46EA (Accessed 11 July 2017).
24. 潘姿羽 (2017) "亞洲矽谷攻物聯網 六路出擊", 聯合新聞網, <https://udn.com/news/story/7241/2451058>, accessed July 10, 2017.
25.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ROC, 行政院通過「金融科技創新實驗條例」草案, 2017, http://www.fsc.gov.tw/ch/home.jsp?id=96&parentpath=0,2&mcustomize=news_view.jsp&dataserno=201705040002&toolsflag=Y&dtable=News, accessed July 10, 2017
26. Liberty Time Net, "張菁雅 '智慧機械推動辦公室成立 蔡英文賦予3任務',"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967036>, accessed July 9, 2017
27. P. Prasartkul and P. Vapattanawong, *Thai Health 2012: Thai Population and Health Indicators Taking the pulse of Thailand's Populational Health* [ebook], pp.12–13, http://www.hiso.or.th/hiso/picture/reportHealth/ThaiHealth2012/eng2012_4.pdf, accessed July 10, 2017.
28. Defined as the ratio between the aged population (65 and over) and the working age population (15-64).
29. Asian Development Bank,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Thailand, 2013–2016* [ebook], pp.1–3,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linked-documents/cps-tha-2013-2016-pa.pdf>, accessed July 10, 2017.

30. Bangkok: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Thailand 4.0 Means Opportunity Thailand* [ebook], 2017, pp.1–3, http://www.boi.go.th/upload/content/TIR_Jan_32824.pdf, July 10, 2017.
31. UN population data.
32. Time, *TIME Special Report: The World at 7 Billion*,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2097720_2097718_2097716,00.html, accessed 1 August 2017.
33. B. Vera, "World Bank: Filipinos living in urban areas to double to 102M by 2050," *Newsinfo.inquirer.net*, <http://newsinfo.inquirer.net/900745/world-bank-filipinos-living-in-urban-areas-to-double-to-102m-by-2050>, accessed July 10, 2017.
34. Karim Raslan, "How outsourcing transformed the Philippine middle class," *Business Insider*, December 29, 2016, <http://www.businessinsider.com/outsourcing-philippines-middle-class-2016-12/?IR=T>, accessed July 10, 2017.
35. Asian Development Bank, *Increasing equality, managing rural-urban transitions, investing in sustainable infrastructure keys to unlocking prosperity in Asia Pacific*, <https://www.adb.org/news/increasing-equality-managing-rural-urban-transitions-investing-sustainable-infrastructure-keys>, accessed July 10, 2017.
36. A. Aaron Lozada, "Duterte signs EO on 25-year plan to eliminate poverty," ABS-CBN News, <http://news.abs-cbn.com/news/10/15/16/duterte-signs-eo-on-25-year-plan-to-eliminate-poverty>, accessed 10 July 2017.
37. L. Revoly, "Islam in the Philippines," *Revolvy.com*, https://www.revolvy.com/topic/Islam%20in%20the%20Philippines&item_type=topic, accessed July 10, 2017.
38. Thanh Nien Daily, "Vietnam's rapid aging population a new challenge," <http://www.thanhniennews.com/society/vietnams-rapid-aging-population-a-new-challenge-118.html>, accessed July 10, 2017.
39. UNFPA, http://vietnam.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PD_SRB%20Report%202014_ENG_FINAL_printed%20in%20Mar%202017.pdf, accessed July 10, 2017.
40. SITEC Academy, *Where are consumers introduced to new products in Southeast Asia?*, <http://www.sitecademy.com/where-are-consumers-introduced-to-new-products-in-southeast-asia/>, accessed July 10, 2017.
41. "Growth of the Halal industry," <http://www.themalaymailonline.com/features/article/growth-of-the-halal-industry>, accessed July 10, 2017.
42. The standard measure of inequality, the Gini coefficient declined from 0.46 in 2004 to 0.40 in 2014 based on analysis by the Development Research Group (DECRG), <http://pubdocs.worldbank.org/en/285151475547874083/Is-Inequality-in-Malaysia-Really-Going-Down.pdf>
43. Khazanah Research Institute, http://ongkianming.com/wp-content/uploads/2016/09/KRI_State_of_Households_II_280816.pdf
44. World Economic Forum, *How can Malaysia reduce inequality?*, <https://www.weforum.org/agenda/2015/02/how-can-malaysia-reduce-inequality/>, accessed July 10, 2017.
45. Kamles Kumar, "Racial discrimination in Malaysia growing despite Putrajaya's efforts," *Sg.news.yahoo.com*, <https://sg.news.yahoo.com/report-racial-discrimination-malaysia-growing-despite-putrajaya-efforts-151600304.html>, accessed July 10, 2017.
46. Diag, http://www.diag.uniroma1.it/~deluca/rob1_en/2015_WorldRobotics_ExecSummary.pdf, accessed July, 2017.
47. Digital News Asia. 2017. *Universal Robots doubles distribution network to meet growing demand for collaborative robots*. [ONLINE] Available at: <https://www.digitalnewsasia.com/business/universal-robots-doubles-distribution-network-meet-growing-demand-collaborative-robots>. [Accessed 11 July 2017].
48. A Sustainable Population for a Dynamic Singapore: Population White Paper. (2017). [ebook] Singapore: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p.9-13. Available at: <https://www.nptd.gov.sg/PORTALS/0/HOMEPAGE/HIGHLIGHTS/population-white-paper.pdf> [Accessed 10 Jul. 2017].
49. C. Yong, "Income inequality in Singapore lowest in a decade, monthly household income grows but at slower rate," *Straits Times*,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income-inequality-lowest-in-a-decade-monthly-household-income-grows-but-at-slower-rate>, accessed July 10, 2017.
50. M. Lomas, "Which Asian country will replace China as the 'world's factory'?" *Diplomat*, <http://thedi diplomat.com/2017/02/which-asian-country-will-replace-china-as-the-worlds-factory/>, accessed July 10, 2017.
51. S. Yusoof, F. Zuber, H. MNSR, N. Zamziba, and S. Toriry, "Wages of labour discrimination: Case study on Nike company,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4(1), pp.19–27, http://hrmars.com/hrmars_papers/Wages_of_Labour_Discrimination_Case_Study_on_Nike_Company_Indonesia.pdf, accessed July 10, 2017.
52. S. Kemp, "The full guide to Southeast Asia's digital landscape in 2017," *Techinasia.com*, <https://www.techinasia.com/talk/full-guide-southeast-asia-digital-landscape-2017>, accessed July 10, 2017.
53. Deloitte, *Building the lucky country: Positioning for prosperity?*, <https://www2.deloitte.com/au/en/pages/building-lucky-country/articles/positioning-for-prosperity.html>
54. Treasury, Australia, "Intergenerational report," <http://archive.treasury.gov.au/contentitem.asp?ContentID=378>
55. CSIRO, "Our top 10 achievements," <https://www.csiro.au/en/About/History-achievements/Top-10-inventions>

필진 소개

Voice of Asia 시리즈는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도전과 기회를 살펴보고자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적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아래 이코노미스트들은 *Voice of Asia*
(Edition3, September 2017)
세번째 발간물에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James Allnutt

Principal, Deloitte Access Economics, Australia
Canberra
jallnutt@deloitte.com.au

Anis Chakravarty

Lead Economist and Partner, Deloitte India
Mumbai
anchakravarty@deloitte.com

Simone Cheung

Director, Deloitte Access Economics, Australia
Sydney
simcheung@deloitte.com.au

Richa Gupta

Senior Economist and Senior Director, Deloitte India
Delhi
richagupta@deloitte.com

Kenny Hong

C&I Leader, Deloitte Taiwan
Taipei
khong@deloitte.com.tw

Sarah Huang

C&I Senior Manager, Deloitte Taiwan
Taipei
sarahuang@deloitte.com.tw

Tsuyoshi Oyama

Partner, Deloitte Japan
Tokyo
tsuyoshi.oyama@tohatsu.co.jp

Chris Richardson

Partner, Deloitte Access Economics, Australia
Canberra
chr Richardson@deloitte.com.au

Rishi Shah

Economist, Deloitte India
Delhi
shahrishi@deloitte.com

Ric Simes

Director, Deloitte Access Economics, Australia
Sydney
rsimes@deloitte.com.au

Stephen Smith

Lead Partner, Deloitte Access Economics, Australia
Canberra
stephensmith1@deloitte.com.au

Sitao Xu

Chief Economist and Partner, Deloitte China
Beijing
sxu@deloitte.com.cn

Manu Bhaskaran

CEO, Centennial Asia Advisors Pte Ltd; Alliance Partner
manu@centennialasia.com

The following Deloitte leaders provided invaluable guidance, insights and perspectives:

Yoichiro Ogawa

Asia Pacific Regional Managing Director,
Deloitte Global and CEO, Deloitte Japan
Tokyo
yoichiro.ogawa@tohatsu.co.jp

Ian Thatcher

Asia Pacific Deputy Regional Managing Director,
Deloitte Global
Sydney
ithatcher@deloitte.com.au

Ira Kalish

Chief Economist, Deloitte Global
Los Angeles
ikalish@deloitte.com

Thomas Pippas

CEO, Deloitte New Zealand
Wellington
tpippas@deloitte.co.nz

Soo Earn Keoy

Regional Managing Partner, Financial Advisory,
Deloitte Southeast Asia
Singapore
skeoy@deloitte.com

There are many people to thank
across the entire Voice of Asia team:

Stephanie Choy

Franklin Wright

Chaanah Crichton

Karnon Chartisathian

Anneliese O'Young

Peita Calvert

Carmen Roche

Neil Glaser

Tass Gyenes

Sheraan Underwood

Cathryn Lee

Ellouise Roberts

Ned Manning

Troy Bishop

Ramani Moses

Junko Kaji

and the Deloitte Insights team



Voice of Asia, First Edition, January 2017

2017 will be better than you think

Voice of Asia, Second Edition, May 2017

Asia winning the race on innovation, growth and
connectivity—powered by digital engagement

Deloitte. Insights

Sign up for Deloitte Insights updates at www.deloitte.com/insights.



Follow @DeloitteInsight

About Deloitte Insights

Deloitte Insights publishes original articles, reports and periodicals that provide insights for businesses, the public sector and NGOs. Our goal is to draw upon research and experience from throughout our professional services organisation, and that of coauthors in academia and business, to advance the conversation on a broad spectrum of topics of interest to executives and government leaders.

Deloitte Insights is an imprint of Deloitte Development LLC.

About this publication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affiliates are,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accounting,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leg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This public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such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r should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

About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Copyright © 2017 APCA Limited. All rights reserved.

MCBD_ADL_08/17_054713